


호주제 폐지,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제 진실! 그것이 궁금하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후원 : 여성부 

인권정보자료실  
Mc1.36



# 가족을 넘어 생명공동체로

개정판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 의식개선 자료집



호주제폐지 기독교여성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Mc1.36

개정판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 여성 의식개선 자료집

# 가족을 넘어 생명공동체로


이 자료집은 2002년 여성부 후원으로 발행한 것이며, 교회 여성들과 교회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다시 여성부의 후원을 받아 개정판으로 재발행하였다.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100-391)  
전화 : 02-2275-7754, 02-2278-5260 전송 : 02-2269-0670  
E-Mail : kawt@chollian.net



호주제폐지 기독교여성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후원 : 여성부 

## 자료집을 발간하며

‘호주제’는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가부장 사회임을 입증하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로써 여성들의 삶을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여성들은 당연한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호주제는 우리 사회를 남성중심, 혈통중심으로 규정하고 분리하여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소외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도 피폐하게 만드는 불평등한 가족제도는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며,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가부장 문화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법과 제도는 문화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여성들이 자기의 삶에서 주인될 수 없도록 하는 호주제가 법과 제도를 근거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폭력이며, 한국이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에 동의할 수 없고 침묵할 수 없기에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뜻과 의지를 모으고, 호주제를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가장 귀를 닫고 침묵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이다. 이 막다른 길에서 만나는 교회는 “그 일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한국 교회는 여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억압의 바윗돌을 옮기기 위해 교회 여성들과 함께 한결음 더 나아갔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더 많은 바윗돌을 옮길 수 있다고 믿는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여성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살도록 돕고,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것은 치유의 선교이다. 우리 역사의 어두운 길목에서 불을 밝혔던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사회의 평등 불감증을 흔들어 깨우고 균형있는 사회가 되도록 먼저 앞장설 때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삶에 상관이였듯이 교회도 세상에 참여하여 상관이여야 한다. ‘호주제’라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울타리를 넘어선다면 더 넓은 ‘나’가 되어 생명공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는 평등세상을 꿈꾸는 많은 교회여성들과 교회의 요청으로 2002년에 발행한 이 자료집의 개정판을 발행하며, 이 자료집이 호주제 폐지를 위하여 교회와 기독교여성들이 함께 나서 또 하나의 바윗돌을 옮기는 진보의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2003년 6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2 ... 자료집을 발간하며

### 4 ... 몸으로 읽는 성서

희망의 아이를 낳아보자! 추석과 마리아 / 기독교여민회

### 9 ... 설교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 한국염

### 14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울타리 가족을 넘어 생명가족으로 / 구미정

### 32 ... 남성이 바라보는 호주제

예수께서는 호주제에 대해 뭐라 하실까? / 박동현

호주제 이제 폐지 합시다. / 박상중

### 36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호주제 폐지와 평등한 부부 생활 / 이은선

더 큰 가족공동체와 참 사랑을 위하여 / 이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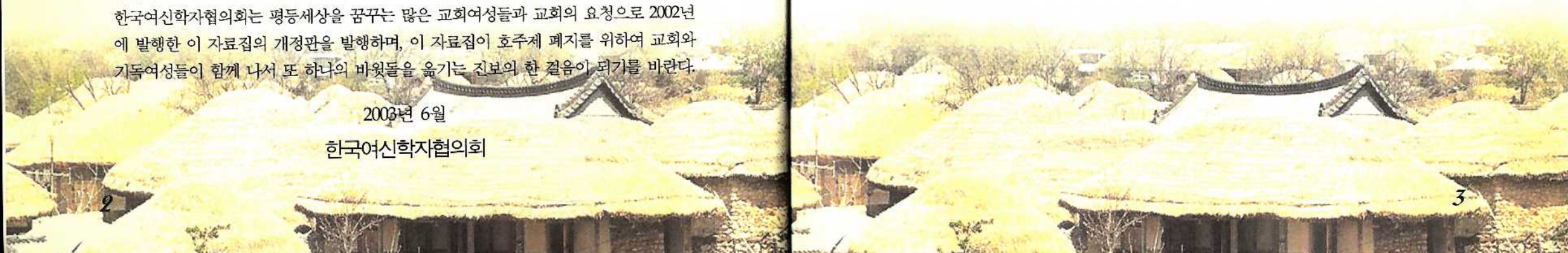
가부장 문화, 우리 교회에는 안 어울립니다. / 박후임

### 48 ... 예배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예배 / 호주제폐지 기독교여성연대

### 65 ... 부록

호주제 폐지 관련 자료





## 몸으로 읽는 성서

# 희망의 아이를 낳아보자! 추석과 마리아

본문 : 누가복음 1:28-38, 1:59-64

### 기독교민회

지난 9월 28일, 기독교민회에서는 13명의 회원들이 모여,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열린 예배를 드렸다. 호주제 폐지를 성서 연구작업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먼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만나게 하고 싶어서 예배를 드렸다. 마침 시기적으로 추석명절이 지난 후라서, '추석 끝 이야기를 몸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명절 문화 속에 놓여진 여성의 존재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성서는 가족제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서 본문 두 개를 정하여 '되어보기 그리고 다시 쓰기'를 실시하였다.

### 1. '추석 끝 이야기를 몸으로'

예배실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예배실 한 가운데에 둥근 단을 만들고 단 위에 작은 성모상을 놓았다. 단 주변에는 다양 각색의 보자기 9장을 펼쳐 놓았다.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지난 추석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천천히 걷도록 하였다.

맨발로 천의 느낌과 방바닥의 느낌, 그리고 색깔에서 전해져오는 느낌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걸어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색의 천에 앉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석의 느낌을 천을 통해 나름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다 만들어진 사람들은 제자리에 앉아 충분히 기다린 후에 나눔을 하였다. 나눔을 할 때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듣기 전에 보는 이들의 느낌을 먼저 들은 후 들었다. 보는 이의 느낌을 먼저 말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느낌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느낌을 만날 수 있고, 또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나눔에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물론, 천 색깔이 주는 선입견과 실크천이 주는 느낌에서 오는 선입견이 있었음을 미리 밝힌다.

그 때 나온 느낌<sup>1)</sup>들을 나누면서,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추석'이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울고싶은 마음이 든다는 회원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가족 문화의 미성숙함에 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특히, 여성들의 존재가 아예 무시되는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한편,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가족에서는 추석문화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고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며 기쁨을 주는 좋은 기회라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아무에게도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기에 가슴이 시원해지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불평등한 가족제도가 여성들을 부자유하게 하며 이 불평등한 가족제도를 이루는 남성중심의 '호주제'는 그러므로 반드시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 2. '되어보기 그리고 다시 쓰기'

본문: (1) 누가복음 8:19-21 (2) 누가복음 1:27-38

(1)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들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시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야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하였다.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여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야라. 그 아기는 위대한 분이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시어 야곱의 후손을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겠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 일러주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들 하였지만,

1) 느낌들을 두 부류로 정리해 보았다.

\* 불편, 외로움, 어두움, 차가움, 답답함, 가라앉음, 버려짐, 썬, 도망, 감추고 싶음, 귀찮음, 꼬여있음, 소용돌이, 복잡함, 초라함, 분주함, 피곤함, 내버려짐, 혼돈, 아픔, 지침, 고통, 무신경, 망가짐, 조바심, 긴장감, 불쌍함, 숨막힘, 반듯함, 두려움, 싫음, 애처로움, 질주, 몸부림, 지겹다, 도전적, 널브러짐, 무섭다. 꼬임, 갈망, 흐릿함, 희석됨, 혼란, 안타까움, 구겨짐, 미진함.

\* 구심점이 하나로 모아짐, 어우러짐, 즐거움, 생기발랄, 아름다움, 고고함, 부드러움, 포근함, 우아함, 신비로움, 열린, 여유, 그리움, 화사함.



## 몸으로 읽는 성서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자가 벌써 여섯 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마리아는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위낙 우리에게 익숙한 두 개의 본문인지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 놓아야 ‘되어보기’가 가능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마치 처음 대하는 것처럼 보아야 가능하다. 때문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천천히 말씀을 읽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되어보라고 하였다. 충분히 마리아가 되어서 그 상황을 만나본 후에, 다시 성서를 써보기로 하였다.

다시 쓰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되어서 독백하듯이 해도 되고 마리아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도 가능하며, 시나 산문을 통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계속 틀어주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석에 가서 앉은 사람, 책상을 가져다가 편하게 앉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등 다양했지만, 서로에게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고 안내를 하였다.

너무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잘 따라 주어 보다 깊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끝난 후, 다시 쓰기 발표와 작업의 느낌을 나누었다. 여기에는 지면상 몇 가지만 소개한다.

### 마리아에게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결단, 은총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놀랍고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을 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극복하고 당신의 선택, 받아들임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빛이 되어 온 세상에 펼칩니다. 당신의 열림, 깨어남이 머물러 있고, 주저 앉아 있고, 망설이는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길을 열어 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예수를 안았을 때의 그 순간을 그려봅니다. 생명, 떨림, 은총, 신비, 사랑이 어우러진 감격의 순간이었음이 느껴집니다.

### 마리아가 되어서...

참으로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계였지요. 이제 전 조금 있으면 정혼한 남자와 결혼하여 부모님을 떠나 남편과 이루어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 없는 아이를 낳아 만들어지는 세계는 내가 꿈꾸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내게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니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은총이라니요? ‘기뻐하라’니요. 당혹스러웠습니다. 당혹스러워하는 나 자신을 보며, 여성은 한 남자의 아내여야 한다는 나를 만났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아이가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나게 하신다는데.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싶었던 저는 또한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고, 한 남자의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주인이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아들에게로 이전된 것일 뿐. 그리고 보면, 나는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또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이 민족의 구원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도, 구원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이길 원했던 이중적 나를 보았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나 봅니다. 전 저를 내려놨습니다. 아니, 이미 내려놓을 것조차 없는 죽은 존재인 나를. 그리고 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으로 되살아난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 안의 생명을 통해 이루게 될 세상 그 새로운 세상은 이미 내 안에 있었습니다.

### 마리아에게

마리아! 나는 당신이 참 부러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부럽지. 나 같았으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커서 감히 아기를 낳을 생각을 못했을 텐데 말이야.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만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도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여. 그 아기는 좋겠다. 마리아 같은 엄마가 있어서...

### 마리아가 되어서...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남자 없이 아이를 가져?’라고 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나 머리가 돈 여자로 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네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데 남자의 힘없이 아이를 갖게 하신다는 데요. 어떤 큰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겠지만, 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지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라야 이 절망에 빠진 남성들의 세계, 부패와 불의가 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에 제가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오게만 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무엇인가요. 절망에 빠져, 허무함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물리적인



## 몸으로 읽는 성서

사실을 기술하더라도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너무 반가웠지요 그래서 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이며,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아이임을 믿습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세계 가족을 보듬을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만이 혈연과 제도로, 인종과 국적으로 갈라진 세계를 치유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이를 가지면서 저는 아이를 통해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무 것에도 눈치보지 말고 모든 이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이 소망을 가졌기에, 전 더 이상 부끄럽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제 핏줄에 연연해하고, 제 핏줄이 있어도 남편이 없다고 우는 여인들이여! 하나님 나라는 혈연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세계를 보듬어 안는 형제, 자매로 자라날 것입니다.

발표된 내용들을 신학적 또는 성서적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우리의 의도가 왜곡될 것이다. 우리는 성서로 들어가 보았다. 이것은 곧 몸으로 성서를 읽는 작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모두들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흐뭇하고 좋았던 것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서 속의 인물이 이처럼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마리아가 되어보니, 혈연중심의 세계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가족을 넘어서 보여주신 새로운 가족 관계가 이 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도 만나게 되었다.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할 죽음을 넘어서선 처절한 용기와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호주제로 인해서 죽어 가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아이들에게 희망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 설교

#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본문 : 누가복음 13장 10-17절

한국염 (前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총무)

한 가정에 있습니다. 그 집은 어머니와 딸 두 식구였는데 그 집의 호주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딸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기 집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니가 호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호주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 어머니가 호주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 어머니 호적에 있던 자기의 호적을 파서 남편 호적으로 입적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본적이 딸의 본적이 되었고, 남편이 호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집의 호주는 아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이 상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주 상속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남, 장손이 강제로 호주가 되도록 되어있으니까요. 그 여성의 딸도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갈 것이고, 독신으로 남으면 오빠의 호적으로 들어가겠지요. 실제로 대학 교수로 있는 그 집 시고모도 독신으로 있는데 남자 조카인 남편 호적에 들어 있고 남편이 고모의 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0세가 넘은 시어머니가 계신데, 그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남편호적에 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는 손자의 호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그 집의 가장 어른이지만 할머니를 체척놓고 대학교 다니는 손자가 호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려서는 아버지 호적에, 결혼해서는 남편 호적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호적으로, 아들 죽은 다음에 손자가 호주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현대판 삼종지도가 아니겠느냐고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죽을 경우 어머니나 할머니를 체척고 들 지난 아들이나 손자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그 집안의 호주가 되게끔 되어 있는 우리의 호주제, 또한 본부인이 낳은 딸이 버젓이 있는데도, 혼외에서 낳은 아들이 호주가 되는 현행 호주제, 그래서 호주도 될 수 없는 딸을 낳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기에 해마다 3만 여명의 여자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단지 "딸"이라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호주제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며 호주제를 존속시켜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27절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

## 설교

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선언에 근거해서 유엔인권선언 제1장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평등을 깨뜨리는 호주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납니다.

호주(戶主)란 그 집안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한 집안의 주인은 당연히 그 집안 식구 모두가 주인이어야 합니다.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은 가부장 사회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만 한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는 반대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억눌린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허리가 굽은 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 병자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펼 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산 여인이란 그 여성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을까요? 예수는 이 여인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손수 손을 얹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폈다’라는 의미를 지닌 헬리어 ‘아노르도우’는 “회복하다”, “재건하다”라는 뜻입니다. 허리가 굽은 여인이 정상적인 자세로 회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왜 이 여인의 허리가 휘었을까요? 허리가 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고 합니다. 하나는 영양부족이요, 다른 하나는 과중한 짐을 지거나 다친 경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의 삶은 엄청난 질곡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차별과 가난, 거기에 여성이기에 당하는 이중적인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도 끼지 못하는 시대에 많은 팔레스타인 여성들이 이 여성처럼 허리가 굽어 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집의 주인인 남성부터 먹고 그 다음으로 여자들이 먹다 보니, 가뜩이나 가난하고 궁핍한 먹거리에 여자는 영양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해야 했고, 열심히 일해야 남자의 3분의 1밖에 못 받으면서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가 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눌러 허리가 굽어 있는 여인을 예수는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 주어 여인이 허리를 펴게 되자, 회당장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시비를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물을 먹이는 것처럼 이 여인도 사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풀어주어야 한다.” 예수는 이 여인의 허리가 굽은 것을 단순히 병이 아니라 사탄이 묶어놓은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물론 당시에는 현대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귀신이 씌웠거나 사탄에 걸렸다고 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병을 사탄에 걸린 것으로 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 허리 굽은 여인의 경우는 사탄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는 이 여인의 허리를 굽게 만든,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억누른 계도를 사탄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압제와 굴레를 사탄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고치고 나서 회당장에게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만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존중받고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시에 여성은 사람 수에도 끼지 못했는데, 감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리를 펴주시며 아브라함의 딸로서 존엄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듯이 사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인간을 억누르고 기 펴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하신 일이고, 예수의 길이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려나야 할 사탄의 굴레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얽어매어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할 때,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여러 가지 사탄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호주제입니다. 호주제는 여자를 남자의 호적에 매여놓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사탄의 굴레입니다. 호주제를 폐지하여 여성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기쁘고 살아가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반면 이런 예수와는 달리 회당장은 예수께서 허리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것을 비난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을 지켜야 하는 전통과 규례가 있는데, 왜 정해진 법을 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제도나 법은 지켜야 한다는 게 회당장의 입장입니다. 안식일 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안식일 제도가 유지될 수 없고 안식일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유대교가 존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안식일 법이 우선입니다. 18년 동안 굽어 있던 허리가 펴졌다면 오히려 잔치를 하고 축하할 일이지만, 인간보다 제도가 우선인 사람, 생명보다는 제도가 우선인 사람은 이런 축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 제도유지나 전통유지가 우선입니다. 오늘날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회당장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딸들이 허리를 펴서 존엄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가부장적 질서유지에만 관심합니다. 호주제는 미풍양속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호주제는 우리 전통도 미풍양속도 아닙니다.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금과 부역을 잘 통제하기

## 설교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제 식민지 지배의 산물입니다. 그런 호주제를 만든 일본에서조차 호주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걸 우리 교유의 띠풍양속이라고 우기면서 호주제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자만이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교도와 몰몬교도를 제외하고는 구약시대의 족장들처럼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지 않습니다. 호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의 성서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만들어졌거나,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에게 내린 벌 중의 하나가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성서에 기록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과연 창조질서입니까? 아니, 그 질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벌로 내려진 타락의 질서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지배 밑에서 사는 모습은 타락의 질서 아래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창조질서의 회복이지 타락질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한, 남자만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호주제는 설자리가 없습니다.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이용해서 호주제를 정당화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핵심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이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차별의 본문으로 인용되고 있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에베소 5장의 구절들마저도 “주님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생겨났다(고전 11:11-12)”,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앞의 말을 뒤엎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단지 바울 한 사람의 선언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을 때, 여러 회중 앞에서 한 세례 고백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그 어떤 법이나 질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호주제는 반그리스도적인 제도이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그리스도적인 호주제를 유지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남성중심의 핏줄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나?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다.” 그리스도인은 호주제는 물론이고 혈연적 가족개념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8년 동안 허리 굽은 여인의 허리를 펴준 것보다 안식일 지키는 것에 더 가치를 둔 회당장을 위선자라고 꾸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호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가부장제도 유지를 위해 호주제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위선자의 반열입니까, 아니면 해방자 예수의 반열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회당에서 비록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허리 굽은 여인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해야 하는 날이 옛새나 있으니, 옛새 가운데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회당장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허리 굽은 것이 당장 목숨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법과 질서를 깨면서까지 꼭 안식일에 고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언뜻 보아 그럴 듯합니다. 옛새 중 다른 어느 날에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의 말처럼 적당한 이유를 대고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날 언제인가 하면 된다는 핑계를 대고 그 날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제 폐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장 목숨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고통을 연장하지 않도록 지금 고쳐야 합니다. 지금 풀어야 합니다. 왜 다른 날 고치면 되지 꼭 오늘 하느냐고 예수님을 나무란 회당장처럼 아직은 시기 상조이니 더 있다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을 묶어놓는 호주제는 지금 폐지되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고쳐야 할 때입니다.

여인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께 고침을 받고 허리를 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호주제에 묶이고 가부장제에 눌려 허리가 굽어 있는 오늘 한국 여성들의 허리를 펴게 합시다. 한국의 교회가 먼저 호주제 폐지에 나섭시다. 허리를 편 여성들이, 하나님의 딸인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와 이 땅에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합시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 울타리 가족을 넘어 생명가족으로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 -

구미정

(기독교윤리학 박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회원)

## 1. 들어가는 말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야기가 세 개의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맨 처음에는 한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이야기이며,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비유'의 형태로 소개되는데, 비유란 본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을 폭로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속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주제가 반복되는 데에는 그만큼 까닭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에 입각하여 '이방인'과 '죄인'으로 천대받았던 존재들이 구원의 빛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요, 그런 기쁨의 잔치에 즐거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오늘날 호주제 폐지를 둘러싼 일반인들의 정서를 헤아려볼 때,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의 정황과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의 관심은 이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안주하고 있는 기독교권자들을 향해 있지 않다. 오히려 버림받은 자, 빼앗긴 자, 배제된 자, 소외된 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예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기독교인이 있다고 자만하면서 약자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내치실 것이라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마 21:31).

소위 '정상적인', '호적상태가 양호한' 가정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주제가 있거나 말거나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식으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곤 한다. 호주제 폐지는 그저 '비정상적인', 이혼이나 재혼 등의 '문제' 때문에 '호적상태가 불량한' 일부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지, '뚝바로 살면' 뭐 답답할 게 있겠느냐고 하면서, 점차 이혼율이 증가하는 현 세대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무관심과 배타적 태도는 예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허위 의식에 상응하는 것이다.

참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눈의 바리새적 비늘을 벗겨내도록 요구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그 믿음은 곧 사랑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수많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자녀들이 호주제라는 악제(惡制)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 부르짖음이 담장을 넘는데도 자기 울타리가 든든하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참된 응답이 아니다. 이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로 상징되는 울타리에 의존하여 여성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삼중지도의 시대는 지났다. 바야흐로 새 시대의 여성들은 허울뿐인 울타리 가족이 아니라, 생명 가족의 지킴이로 거듭나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독 여성들이 나서서 호주제 폐지운동에 힘을 실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토록 말썽을 일으키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호주제 때문에 당하게 되는 구체적인 피해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호주제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악법이요, 따라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때, 그렇게 주장할 만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씩 그 대답을 추적해 보도록 한다.

## 2. 피해사례를 통해 본 호주제의 문제점

### 1) 호주제와 호적제 - 무엇이 문제인가?

호주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법상 '가(家)'를 구성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이 이루어지게끔 정한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그리고 부계혈통으로만 이어지는 성씨제도 등이다. 이런 예가 있다.1) 대학 강사인 30대 여성 박아무개 씨는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혼수 문제로 신랑될 사람과 심하게 다툰 뒤, 비록 만삭의 몸이지만, 용감히 결혼을 포기했다. 그리고는, 직장까지 쫓아 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으로 아기를 지우라던 애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혼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출산 두 달 뒤에 갑자기 그 남자가 나타나서는 자기 아들이라며 아기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어이없게 아기를 빼앗긴 이 여성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분개했다. 하지만 그런 법이 버젓이 있는 게 우리나라이다. 민법 제781조에 따르면,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고 되어 있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아야만 어머니의 성을 따라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니 이 무슨 기괴한 노릇인가? 게다가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갔더라도 나중에 아버지가 나타나 생부권을 행사하면 어머니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시몬느 드 보부아르가 말한 것처럼 참으로 여성은 '2등 시민'이란 말인가?

1) 이 사례는 다음의 신문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호주제가 왜 걸림돌이냐고?」, 『한겨레신문』, 2000. 5. 16. 33면.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826조 3항]는 법조항도 여성 차별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확실히 우리의 결혼제도 는 성인 남녀의 평등한 결합보다는, 상징적으로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에 더욱 비중이 있어 보인다. 옛날 삼국시대부터 고려를 거쳐 조선중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네 본연의 혼인풍속은 '남귀여가혼속(男歸女家婚屬)으로서 혼례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생활하는 혼인형태였고, 조선 후기에나 '친영제(親迎制)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하여 혼례 후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혼인형태'가 자리잡게 되었다는데,<sup>2)</sup> 그것이 일제시대의 호주제와 결합되어 여전히 우리의 의식과 문화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느낌이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라는 호주 밑에서 압전히 '보호'받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는 호주 밑으로 들어가 '보호'받는 것이 '팔자 좋은 여자의 전형'이라는 통념은, 여성의 주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발상인 것이다.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 순서대로 호주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984조]. 그러므로 호주의 개념은 '가장'의 개념과 결코 동일하지 않고, 다만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이러한 아들 중심의 호주승계순위 때문에,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혼외자녀를 입적시켰다 해도<sup>3)</sup> 그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임에 틀림없으면 딸은 어디까지나 2순위로 물러나게 되고 1순위의 아들이 호주가 되는 것이다.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부인과 19세된 딸 대신에 혼외자녀인 3살 아들이 호주가 된 사례라든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60세된 할머니와 며느리 대신에 3살 손자가 호주가 된 사례 등은 현행 호주제가 얼마나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독립된 인격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악법인지를 실감케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호주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남아선호사상을 자연스럽게 부추기게 된다는 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딸은 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과 같은 대명천지에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미스럽게도 '낙태천국'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는 1년에 3만 명에 달하는 여아가 성감별에 의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아·남아의 출생성비가 100:110.2(98년 기준)라는 기현상이 말해주듯이, 성비불균형에 따른 여파는 감히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한편, 호주제에 근거하여,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

- 2) 이순구, 「조선초기 주지화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1985), 4쪽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2000. 7.), 30에서 재인용;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참고하라.
- 3)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외 자녀를 입적시킴에 있어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외 자녀(외도로 낳은 자녀, 재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784조].

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를 호적제라고 한다. 이 호적제는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을 기재하여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편제의 기준은 '호주'가 된다. 즉 가족원 모두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적에 그 상호관계를 기재하게 되는데, 그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편부·편모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또는 독신 가정이나 재혼 가정 등 날로 다양해져 가는 현대사회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호적법은 하나의 호적에 호주와 그 호주의 아내 및 호주의 성씨를 따른 자녀들이 울곧게 들어 있어야 비로소 '정상가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어,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무수한 가족의 형태를 '비정상가정'으로 보게 만드는 차별적 의식을 낳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호적편제방식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sup>4)</sup>

### 2) 아들선호, 남성중심문화로 인해 겪는 피해들<sup>5)</sup>

· 사례 1 - K씨(41세, 결혼 18년차, 주부)

결혼한 지 18년 되었다. 아들을 못 낳고 초3, 중2, 초2된 딸만 셋을 두었다. 주위로부터 아들을 입양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다. 시어머니도 아들을 몹시 바래서, 남편이 작년에 외도를 했다. 나는 아들을 못낳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메스컴에서도 아들선호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피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키울 능력도 없다...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변하기 시작했고, 또 시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외도를 한 것이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잘해 드리니까 더 이상 아들 못 낳았다는 구박은 하지 않는다.

· 사례 2 - H씨(39세, 결혼 10년차, 프리랜서 작가)

딸이 하나 있는데 남편이 아들 낳기를 원하고 있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나 말고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괜히 기가

4) 새로운 호적편제방식으로는, 철저히 개인별·사건별 기록제도를 택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지의 1인1적제와 일본처럼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자녀동적의 원리에 따라 편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개 선진국은 1인1적제로 가는 추세이나, 현재 한국인의 정서상 기본 가족편제방식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년 연구보고서 ; 그밖에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호주제 폐지 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2000. 8.) 등의 보고서를 참고하라. <http://antihaju.jinbo.net> 자료실에 관련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5) 이하의 사례들은 <http://no-hoju.women21.or.kr>(호주제폐지운동본부)와 <http://antiha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에서 '호주제 피해사례' 가운데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죽어 남편한테 미안하다. 남편은 친구모임에도 잘 나가려 하지 않는다. 남편 친구들 모임에 가면 아들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아들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런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된다. 어떤 때는 아예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나 자신에 대한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 사례 3 - B씨(39세, 결혼 20년차, 자영업)

우리 엄마는 본처였지만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새 엄마가 들어와 아들을 낳고 아버지랑 살았는데, 나 역시 어렸을 때 남의 집으로 보내져 힘들게 컸다. 우리 엄마는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신다. 이렇게 양친 부모가 계시는데도 나는 호적에서 제적이 되어, 주민등록상에 고아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사는 지금에서도, 우리 엄마와 내 처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 사례 4 - L씨(39세, 결혼16년차, 주부)

나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 시댁의 맏며느리이다.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장남이 다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친정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댁에 제사가 있으면 가지 못한다. 시댁 제사는 1년에 평균 7번 정도 지낸다. 동서가 있지만 제사에 오지 않을 때가 있어, 혼자 다하는 경우가 많다.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들어서 힘든 게 아니다. 친정에서도 내가 맏딸인데 명절 때 한번도 가보지 못했고, 친정아버지 생신과 가정 행사 때에도 갈 수가 없다. 오직 맏며느리라는 책임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나와 똑같은 처지로 살게 된다면 누가 딸을 낳으려고 하겠는가? 아들 귀하면 딸도 귀한 줄 아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사례 5 - G씨(48세, 미혼, 자영업)

주민등록을 볼 때마다 불쾌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가 호주로 되어 있다. 동생 학비를 대주느라, 결혼도 못하고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다. 내가 죽더라도 재산을 오빠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오빠 호적에 남아 있으면 내 재산이 오빠한테 갈 것 같다. 나이가 오십이 다된 상황에서 오빠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호주제는 딸, 아내, 어머니보다는 아들, 남편, 아버지를 우위에 두도록 만드는 가부장적 편견을 강화시킨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넓게는 사회의 전 분야에서 남성을 1순위로 올려놓고 떠받들도록 종용하는 호주제의 실제적 폐악 때문에 한국 사회는 지독한 마초(macho, 남근중심주의) 사회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것이다.<sup>6)</sup> 그

6) 지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영유아보육법>(19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1999) 등이 제정되어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

동안 몇 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대폭 줄어들고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고는 하나, 실제 생활에서 호주제는 사실상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그렇다. 가령, 부부가 결혼 이후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집을 매입한 경우, 남편이 호주 및 가장이어서 남편 앞으로 명의를 하였는데,<sup>8)</sup> 그 뒤에 남편이 부인 동의도 받지 않고 매매하거나, 빚 보증 등으로 재산을 손실하게 되었다거나 부인은 이에 대한 무효주장이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밖에 상속과 관련해서도 호주제가 여성을 차별하는 족쇄로 작용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어떤 여성은 독립유공자인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양해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연금수급권이 아들인 남동생에게로 넘어갔고, 그 남동생마저 사망하자 손주로 이관되어, 실제 가장 노릇을 한 그 여성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었다는 것이다.<sup>9)</sup>

이런 사례들을 통해 보면 호주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여타의 여성 차별적 법률과 제도와 관행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고 다닌다는 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호주제를 기반으로 한 법률이 무려 4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니,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성의 삶이 온전하고 주체적으로 꽃피기는 애당초 틀린 것이다.

### 3) 이혼·재혼시 자녀의 호적과 성을 변경할 수 없어 겪는 피해들<sup>10)</sup>

· 사례 1 - L씨(43세, 이혼, 주부)

결혼 10년 만에 이혼한 뒤, 현재 고3, 고2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정식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남편이 여자문제로 나가 있어, 8년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했다. 이혼 당시 시집에서 아이들이 크면 데려 가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내가 필쩍 뛰었다. 지금 데려가든지 아니면 아예 데려갈 생각을 말든지, 애들 교육상 안 좋다고 했다. 한번은 애들이 초등학교

대하는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했으나,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이러한 개선안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호주제 폐지관련 논의 및 추진방향』 (2000. 8. 21.) 1.

- 7) 1991년, 대대적으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 '상속'이 '승계'로 바뀌고 심지어 해당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게끔 되었으며, 또한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도 친가와 처가 사이에 차별이 없도록 양쪽 모두 8촌까지 친족으로 규정되었고, 성별이나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자녀의 균등한 상속을 보장하는 재산상속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권과 친권행사 및 양육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정비되었다. 1997년에 단행된 국적법 개정에서는 국적 취득시 '부모 양계혈통주의' 원칙을 적용시킴으로써 부계혈통주의를 상대화시켰다.
- 8) 현행법에는 아파트 분양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호적 내의 1순위 기재자인 호주가 주민등록 내의 1순위 세대주로 기재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주인 남편이 주민등록상 말소되거나 전출되지 않으면 부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다.
-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는 아들이나 손자보다 아래 순위로 규정되므로 거의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 10) 각주 4를 참고하라.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다닐 무렵에, 전남편이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해서 시골 시집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애들을 시어머니 댁에 맡겨두고 서울로 도망을 쳐버렸다. 시어머니는 막걸리로 끼니를 때우며 사는 양반으로 애들 밥에는 신경도 안 썼다. 그래서 내가 콩나물 장사라도 한다는 심정에서, 피부병과 탈모증으로 엉망이 된 애들을 데려와 키웠다.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전남편은 아이들 양육비를 준다며 처음에 100만원을 주더니 이젠 20만원도 줘다가 안줬다가 한다. 그러더니 요즘은 애들이 학비 달라고 하면 빗 독촉하냐고 야단이다. 그 사람은 전과자인데다가 과거에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관련 범죄로 도망다니곤 했다. 지금도 술집을 하긴 하는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걱정이야. 아이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상에는 전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어 염려된다.

### · 사례 2 - T씨 (41세, 이혼, 주부)

아들 둘을 둔 주부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키우고 있다. 내 호적은 친정에 있고 애들 호적은 남편에게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내 자식이 '동거인'이라니...취직하려 갔다가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수모를 당한 적도 있다.

### · 사례 3 - P씨 (43세, 재혼, 주부)

이혼 후 내가 아이를 맡아 기르다가 재혼을 해서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하나 낳았다. 남편도 전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성도 변경하고 싶어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 비참함을 느낀다. 주민등록상에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재학중인 큰 아이는 법적으로 '자(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아이의 성을 바꾸고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면 좋겠다. 남편도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피해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 · 사례 4 - L씨(48세, 재혼, 기업운영)

애들이 어려서 이혼한 뒤 재혼했기 때문에 그 애들은 현재 남편을 아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버지와 성이 달라,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상처를 받고 주위 눈총을 받을까 우려되어, 아이들이 각각 5살, 7살이던 무렵에 가족 모두가 외국으로 떠났다가 아이들만 남겨놓고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싶어한다. 지금 아이들은 15살, 17살이 되었다. 매일 국제전화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외국에서는 성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힘들지 않은가? 나는 아이들 의사에 따라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사례 5 - K씨(36세, 이혼, 건물임대업)

이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내가 갖고 있다. 나는 호적을 새

로 만들 수 있지만, 아이는 내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나처럼 아이가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사귀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1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남편과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이 상속되지 않을까? 재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을 '동거인'이 아닌 실제 자식으로 호적에 올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 성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아이의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라고 하여 남녀평등을 선언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헌법 제36조 제1항]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아내의 지위를 남편보다 낮게, 어머니의 지위를 아버지보다 낮게, 여아의 지위를 남아보다 낮게 위치짓게 만드는 호주제는 이러한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호주제는 국제인권법상 기본적인 인권 항목에 속하는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국제인권규약(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 10일부터 발효)에서는 '혼인 중의 양성평등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한 바 있고, 유엔(UN) 여성차별철폐협약(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1월 26일부터 발효) 제16조에서는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면서, "혼인 중이나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제16조 제1항 g호에서는 "가족의 성씨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권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999년 11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몰아매는 가부장제를 강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으며 속히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과는 아랑곳없이, 우리 나라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한 여성과 그 자녀가 남편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녀는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여성 차별을 유도한다. 또한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및 재혼 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자연적 권리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혼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새 호적(1인 1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 있도록 되어 있어,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공유할 수는 없으며 주민등록상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모자(母子) 관계를 왜곡시키는 병폐가 있다. 전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 역시 딜레마를 겪기는 마찬가지다. 자녀의 성씨와 본적, 호적을 변경할 수 없기에, 그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씨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과 더불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다니, 호주제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의 숨죽인 원망과 한이 느껴질 법하다.

2001년을 기준하여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28로 이미 스웨덴(24), 독일(23), 일본(20)의 경우를 앞질렀다.<sup>11)</sup> 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우선입적의 원칙은 여성이 마땅히 누려야 할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여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성씨 선택권을 불허하고 부계혈통에 얽매이도록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가족편제방식인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없다. 한 사람의 가장/호주와 그에 복속하는 가족원으로 구성된 종적인 가족개념 갖고는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기틀을 닦아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천황제라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 따라 이 땅에 강제로 이식된 호주제는<sup>12)</sup> 더 이상 존립의미와 가치가 없다.

###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응답

사실 교회 안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교회활동이 주로 특정한 날에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물리적 특수성에 기인하기도 하거니와,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대개 '거룩한' 대화만이 오고야 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사회정치적인 화제들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호주제로 인해 고통 당하는 가족들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사별이나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인해 다양화된 가족형태가 공존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족우선주의'(pro-family ideology)를 표방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11) 통계청이 조사한 '2001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혼인율은 197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반면, 이혼율은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877쌍이 결혼하고, 370쌍이 이혼한다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왔다. 2002. 3. 20. <법률뉴스>; <http://goodlaw.org/news>를 참고하라.

12)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1912)을 통해 천황제를 정착시키게 되는데, 1898년에 공포된 일본 헌법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천황을 범초월적인 전제군주의 지위에 올라놓은 것이다. 그러한 천황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 1898년 민법에서 제정된 '호주상속제'이다. 국가를 가족의 연장체로 보는 데서 천황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엄격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일제가 식민지 주민을 천황제 아래 복속시키기 위해 이 땅에 호주제를 강제 이식한 과정은 이렇다: ① 1906년 조선통감부 설치, ② 1909년 민적법 제정으로 일본식 호주가족제도 도입, ③ 1915년 개정민적법 발표로 실제 거주상태와 무관한 추상적인 '가(家) 개념 도입, ④ 1922년 개정 조선민사령에 의거, 결혼, 출생, 사망, 양자, 파양, 분가, 부흥가 등 가족사항의 모든 변동을 호적에 기록하여만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정함. 이와 더불어 조선호적령이 공포되어 민적법을 대체함으로써, 식민지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기에 이룸. 이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2000년 11월 28일에 제출한 「호주제 위헌소송 소장」을 참고하라. 이 자료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홈페이지(<http://antihouju.jinbo.net>)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성격 때문에 다만 쉬쉬할 뿐이다. 일부 고루한 신앙인 중에는 '혼인의 지속성'을 '믿음·종교'와 연결시켜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가정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상에서 이혼 안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일이라는 등, 소위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형태를 정죄하며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보다도 성도의 영적 교제를 우선으로 두면서, 서로간의 아픔을 감싸주는 치유공동체요, 깊은 심리적·사회적 억눌림의 짐을 서로 도와 벗겨주어야 할 해방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고려해볼 때, 그러한 태도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중심으로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번져나가도록 책임있게 헌신할 사명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호주제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은 무엇인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성서는 호주제에 대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독교인이 호주제 폐지에 동참한다고 할 때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1) 새롭게 읽는 예수의 족보

성서에 보면 심심찮게 족보가 등장하는데, 성서의 세계 역시 가부장적 사회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기록방식이 채택된 것을 보게 된다.<sup>13)</sup> 족보라는 것이 한 사회에서 지배계급 남성의 지위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도 한 남성의 아내나 딸로만 언급될 뿐이다.<sup>14)</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존재가 미약하다거나 그 역할이 가볍지 않다. 오히려 여성들은 특유의 생산능력과 지혜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족보를 통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도 물론 여성들은 아버지의 족보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여성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에는 그 존재와 역할이 지대함을 암시한다. 가령,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아다'가 두 아들을 낳아,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거문고를 뜯고 통소를 부는 악사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한다. 또 한 명의 아내인 '실라'에게는 두 딸가인이 나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5)</sup> 이와 같이 특정 직업의 계보를 거슬

13) 창 11:29-22:23, 민 26:33-27:11, 대상 7:20-27.

14) 박경미, 『예수를 만난 여성들』, 『새 하늘·새 땅·새 여성』, 최만자·박경미 공저 (생활성서사, 1993), 122; 정상적으로 유대인의 족보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여성은 유대 사회에서 전혀 인격을 가진 존재로 간주되지 않았고, 오직 남편이나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5) 권미경,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성찰」, 『한국여성신학』 제47호 (한국여성학자협의회, 2001), 14 참고.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러 올라가 원조를 다름에 있어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결국 여성이 민족의 기원을 가르치는 분기점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것은 사라와 하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생에게서 민족이 갈라져 나가는 과정이 밀도있게 소개된다. 하나님은 엄밀히 말해 '아브라함의 아들'보다는 '사라의 아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찾고 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마태 1:1-17, 눅 3:23-38), 그 내용이 사뭇 다르다.<sup>16)</sup>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14×3)를 내려가며 기록하고,<sup>17)</sup> 누가는 예수부터 아담까지 77대(7×11)를 거슬러 올라가며 기록한다.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예요 다윗의 후예인 그리스도(마 1:1, 17)임을 강조하는 데 비해, 누가는 예수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후예요 하나님의 후예(눅 3:38)임을 강조한다.<sup>18)</sup> 그런데 주목할 점은, 두 족보에 수록된 조상들의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직전까지는 대개 일치하나 나머지 조상들의 이름은 거의 다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두 족보 모두 객관적으로 조상들의 계보를 밝히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예수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누구의 자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예수의 족보의 특이성이 확인해진다. 단언하건대, 예수의 족보는 사실상 부계혈통을 상대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섭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성들, 곧 다말·라합·룻·밧세바·마리아에 의해 확인된다. 이 여성들은 모두 한마디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다. 특히 마리아 이외의 다른 네 명의 여성들은 '이방인들'이며, 이스라엘 족장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뜻밖의' 인물들이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원주민이었고, 룻은 모압 출신이었으며, 밧세바는 이방족속인 히타이트 출신의 군인 우리야의 아내였다. 이들은 정상적 부부관계가 아닌, 매우 기이한 인연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서 요즘말로 하면 '스캔들을 뿌린 여자들'이다.

우선 다말의 경우에는 남편과 사별한 후 '레비라트법'(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도록 정한 관습법)에 의해 시동생과 결혼을 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친정으로 쫓겨나 죽은 목숨처럼 지내던 차에,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성이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 여리고 출신의 창녀였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던 시기에 자신의 도시를 배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이스라엘 편이 되었고, 마침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다. 룻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역시 자기와 똑같은 처지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는다. 끝으로 밧세바는 유부녀의 신분으로서 다윗 왕에게 강간당하고 남편까지 전사하게 된 뒤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게 된다.

이 여성들의 출신성분은 물론이거니와 결혼 및 출산에 이르는 배경도 우리의 윤리적 감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 여성들의 존재로 인해 예수의 족보는 이른바 '혈통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성들은 다윗의 가계(家系), 메시아의 가계가 끊어지려는 순간에 영웅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바로 그러한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19)</sup> 그러니까 이 '뜻밖의' 여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도록 협력한 파트너였던 셈이다.

순수한 부계혈통이나 적통(嫡統·본처가 낳은 적장자)의 개념을 여지없이 타파하는 예수 족보의 의외성은 마리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난 '마리아의 아들'임이 강조된다(마 1:16). 요셉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는 다만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될 뿐이다(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라). 예수는 부계 쪽의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동정녀의 아들'이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인간상의 출현으로, 즉 가부장제를 넘어선 구원의 새 질서로 이해하면 어떨까? 예수의 출생에 남성이 배제된 것은 구원의 세계란 가부장적 질서를 통해 유지될 수 없다는 뜻으로<sup>20)</sup> 받아들여야 어떤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가부장적 가치관이나 가부장적 질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적으로 새로운 인간상의 탄생<sup>21)</sup>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비로소 동정녀 탄생설이 납득할 만하지 않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예수의 가르침들에서 더욱 분명히 발견된다.

### 2) 혈연가족을 넘어 평등공동체로

예수의 가족관은 급진적이다 못해 혁명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그에게서 우리는 '혈

16) 최혜영, 『호주제 폐지의 그리스도교적 근거』, 『호주제와 종교』 (2002년 6월 21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종교여성연대 주최로 열린 "호주제와 종교" 심포지엄 자료집), 44.

17) 마태가 이렇게 구분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수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압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실현하시며 그 역사의 절정에 예수가 탄생하였다는 점에 동의한다. 정양모, 『마태오복음서』(문도출판사, 1990), 37.

18) 누가는 예수가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창 3:15, 갈 4:4), 그리고 그가 둘째 아담이라는 것, 즉 거듭난 인간성을 가진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며, 그 안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J. 윌코크, 『누가복음』 상 (기독교문서, 1990), 168.

19) 헤르만 헨드릭스, 『예수 유년기 이야기』(기독교출판사, 1984), 42-45 참조.

20) 한국역, 『아시아 여성과 마리아』,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대한기독교서회, 1999), 293.

21) 앞 글, 같은 부분.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연에 기반한 가족중심주의'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가족의 의미를 혈연 관계로, 그것도 부계혈통우선으로 한정하고, 그 혈통을 지키기에 급급한 호주제의 시술에 매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교훈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그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 10:34)고 한다. 복음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딸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맞"서도록 만든다. 겉보기에는 단란하고 화목해 보이나, 한 켜를 들춰보면 권위주의적인 질서로 유지되는 가정, 그 집안의 실세가 내리눌리는 힘에 의해 가족원 모두가 설설 가는 구조로 운영되는 가정이라면 그런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생명의 질서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복음의 지시다.

사실상 예수는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가족과 결별한 것처럼 보인다. 아니, 그전에도 벌써 그는 혈연가족 개념을 뛰어넘었던 것 같다.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한 예수의 일대기 가운데서 그러한 일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일화가 누가복음에 소개된다(2:41-51). 예수가 열두 살 때라고 전한다. 유월절이면 해마다 예수 가족은 당시 풍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흘 간 예수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놀라고 당황한 가족들의 태도와 달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의 대화를 즐기던 어린 예수는 태연하기만 한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에게는 성전이야말로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애 태우며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반문한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눅 2:49). 예수의 출생의 신비와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대견한 말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다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예수의 말은 인간적인 부계혈통을 강력히 거부하는 선언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공생애 초기 일화에는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한번은 친척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다녔다는 것이다(막 3:21). 그 친척이 부계인지 아니면 모계인지 모르겠으나, 가부장적 관념이 투철한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요셉 쪽 친척이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예수에게서 줄곧 나타나는 아버지에 대한 거부, 즉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 대한 부정이 그들을 노엽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집에 찾아갔을 때, 예수는 그들을 외면한 채 이렇게 말한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나?...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막 3:33-35).

흔히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의 '새 가족법' 또는 '우주기족의 규범'이라고들 한다. 예수는 편협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실현된,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새 가족의 질서 안에서 경험되는데, 그 질서란 철저히 혈연과는 무관한 "평등한 제자적 공동체"<sup>22)</sup>라는 것이다.

예수에게 가족이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가족이었다. 그는 제자들을 부를

때,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라고 요구한다(마 10:37).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상하위계질서도 배격하고 전적으로 평등한 상호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관계가 종적인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횡적인 '사랑-정의'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among)'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마 18:20)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 질서에 대한 도전이요 전복이다. 아마 기독교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눈엣가시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과 행위가 모두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손톱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고 군림하려 드는 속물적 인간 군상들에 의해 언제나 기 한번 못 펴고 주눅들어 살아야 했던 약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 아니었을까? 가부장적 사회의 서열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즉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에서는 존엄하게 대우받고(마 21:31), 어린아이들이 그 나라에 우선순위로 초대된다(눅 18:17). 이런 소식이야말로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는 구원받은 세계에서는 권력에의 야망이라든지 집단이기주의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 발 디딜 틈이 없음을 준엄하게 선포한다. 그는 그러한 욕망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산실이 바로 가정인 것을 꿰뚫어보고 혈연가족 개념을 무효화함으로써 우리가 가족이기주의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부른다. 다음의 메시지는 예수를 따르는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되찾게 될 것의 목록이 맺귀 형태로 소개된 말씀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백 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막 10:29-30). 학자들은 이 의도적인 맺귀 문장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포착한다. 29절의 버리는 목록에는 '아버지'가 들어 있는데, 30절의 되찾는 목록에는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남성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말에 내포된 세속적·상징적 의미가 새로운 질서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라는 말이 함축하는 가부장적 지배의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한, 예수의 새 가족, 평등한 제자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심지어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라는 호칭마저 금지시킨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마 23: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상대화하는 의미가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지상의 아버지의 요구를 상대화하고 그 권력을 무효화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22) 엘리자베스 S. 피오렌자,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신학적 재건』, 김애영 역 (종로서적, 1986), 178이하; 같은 저자의 『동등자 제자적: 비판적 여성론의 해방교회론』, 김상분/황종렬 공역 (분도출판사, 1997)도 참고하라.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부를 때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따라서 종말론적 가족개념에 비추어 혈연가족을 비판적으로 넘어서려는 인식을 다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통으로나 육정에 있지 않다(요 1:13)는 말씀은 다시 한번 혈연중심의 가족개념에 쐐기를 박는다.

### 3)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흔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인간 존엄성의 개념이 천부인권에 속하는 보편개념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박탈되거나 양보되어선 안 된다는 데 합의한다. 신학자 에밀 브룬너(Emil Brunner)도, 남녀간의 차이와 그로 인한 불평등을 정의의 한 요소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남자와 여자는 공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으며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정의라고 재해석한 바 있다.<sup>23)</sup>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주체로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주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창 1:27)는 성서적 진리에 굳건히 뿌리박고 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유사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구별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닮은꼴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성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창 1:27)고 제차 강조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each and together)고 선언한다. 달리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sup>24)</sup> 인간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창조되었으며, 그리하여 남자와 여자로서 '따로 또 같이' 하나님의 모습에 어울리는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구현하도록 기대된다.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는 그 누구도 억눌리거나 착취당하며 살라고 지음 받지 않았음을 천명한다. 차별과 계급구조는 하나님의 원뜻에 결코 들어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모습은 타락의 표현일 뿐이다. 창세기의 맨 처음 이야기는 오히려 어떠한 사회적 신분관계와 위계 질서도 필연적이거나 숙명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sup>25)</sup> 인류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두 하나님께 가 닿아 있으며, 인간 전체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분의 존재, 또는 불필요한 존재로, 혹은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아선 안 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바울도 "유대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라는 '만민평등 선언' 위에 교회의 토대를 세웠던 것이다.

창세기는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한몸으로 결합함에 있어 '상호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

23) 에밀 브룬너, 『정의와 자유』, 전택부 역(대한기독교서회, 1974), 33.

24)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유연희 역(태초, 1996), 46.

25) 도로테 쉴레, 『사랑과 노동』, 박재순 역(한국신학연구소, 1992), 제2장과 제4장 참고.

시한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짝으로 주신 여자를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남자임을 깨닫는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서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눈을 뜨면서 자의식을 발견케 되는 상호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다. 남자없이 여자없고, 여자없이 남자없다. 둘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표현은 여성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간의 '결속'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으로 이해해야 타당하다.<sup>26)</sup> 창조의 원뜻은 어떠한 '예속'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 없으며, 남자와 여자는 다만 서로에게 결속되어 인생의 시련을 함께 견뎌나가는 동반자관계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한다. 남자와 여자는 비록 해부학적 신체구조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다름이 차별의 원인이 되어선 안되고, 상호보완과 협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창 2:24)는 말씀을 호주제와 관련지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모두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의존하던 어릴 적 습성을 버리고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결합의 원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호주제와 같이 여자가 자기의 본적을 떠나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식의 일방적인 관행은 여성의 미성숙성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성서적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성서는 어디까지나 양성평등과 부부동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두 남녀가 책임 있게 한몸을 이루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상호관계를 이상적인 결합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나가는 말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박탈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극소치 가운데 최대치 원리'(maximin principle)<sup>27)</sup>를 구현할 때, 우리는 그런 법을 가리켜 정의라 부른다. 예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비록 그들의 행위가 우리 눈에 부도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회 나름의 약자보호법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역사적 개입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들이다.

다말의 경우에는 '레비라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법은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26) 필리스 트리블, 『하나님과 성의 수사학』, 166-67.

27) 이 용어는 20세기 정의론의 대가인 존 롤스가 제안한 것으로, 롤스는 사회에서 이득을 가장 적게 보는 계층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해 '맥시민 원리'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적 분배에 있어서 효용성의 원리에 따르기보다는, 사회에서 가장 이득을 적게 보는 계층의 권익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덜 이득을 얻는 자뿐만 아니라 더 이득을 얻는 자도 만족시켜서 마침내 사회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다.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157.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성서적 근거찾기

후사를 이어줌으로써 이스라엘 가문에서 그 이름을 지키려는 목적과 더불어, 이스라엘 여자가 짝 밖의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가족의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여자가 재산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회는 아직 젊으나 자식이 없는 과부를 보호하여 사회적인 부적응을 피하고 남편의 가족 안에서 그 지위를 긍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sup>28)</sup>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가 레비라트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을 친정으로 쫓아내자,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 편법을 쓰게 된 것이다. 이 행위를 가리켜 유다가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창 38:26)라고 고백한 것은 다말이 보여준 생존을 향한 절박한 요구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삶의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에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용기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상달된다는 것이다.

한편 룯의 경우에는 ‘고엘법’이 등장한다. 레비라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곧 남편의 형제가 전멸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친척 순서로 ‘고엘’(속량)의 의무를 져서 이 과부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과부가 된 처지에서, 그것도 재혼하기엔 이미 늙어버린 나옴미와 이스라엘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며느리 룯이 고엘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노력하는 장면은 여느 시어머니-며느리 관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자매애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마침내 룯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자 나옴미가 “일곱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며 며느리를 칭송하는 대목이나, 이웃 사람들이 입을 모아 오벳을 가리켜 ‘나옴미의 아들’이라고 격려하는 대목에서는 가부장제의 높은 장벽과 싸워 이긴 이 두 여자의 우애가 새삼 돋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약자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정의와 입맞춤하게 되는 사례는 라합과 밧세바, 마리아의 경우에서 두드러진다. 라합은 반역죄로 고발될 경우 극형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고, 밧세바는 강간의 피해자로서 전적으로 권력에 희생당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으며, 마리아 역시 약혼기간에 약혼자 이외의 판남자와 관계하면 간통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도,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운 섭리에 의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구원역사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우리는 예언자 아모스의 간구처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암 5:24) 사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정의는 노력 없이도 거저 주어지는 ‘값싼 선물’이 아니다. 오늘날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할 악법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얻게 되는 ‘값비싼 은총’이 바로 정의인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전국적으로 30-50대 국민 2천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주제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sup>29)</sup> 조사 대상자 중 94%가 ‘남녀차별적 대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출산율 때문인지 남아선호의 경향은 차츰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35%나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답하여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고정관념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 남성우위의 호주승계에 대해서는 70%가 반대 의견을 보인 반면, ‘호주’의 개념과 관련하여 84%가 ‘가족을 대표하는 집안의 어른’이나 ‘세대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호주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모순이 파악되었다. 호주제 존폐를 묻는 설문에서는 호주제 존속을 지지하는 의견이 35.3%이고,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41.7%, 그리고 뚜렷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23%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폐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호주제가 폐지되면 불가피하게 개선해야 할 호적제에 대해서는 53%가 ‘주민등록제도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종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아예 ‘호적제도 자체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호적을 이혼한 어머니 호적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은 남녀차별적 규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80%에 달했고,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 자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73%로 나타나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에 정부가 늦어도 2007년 전까지 호주제를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여, 이제 호주제 폐지는 정해진 수순으로 남은 것 같다. 이러한 차에 기독교인은 변화해 가는 사회적 상황과 날로 다양해져 가는 가족형태를 반영하는 정의로운 법이 어서 속히 나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미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온 가족법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호주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평등한 동반자로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안다.

지금은 바야흐로 호주제라는 구시대적인 울무로부터 ‘출애굽’을 단행할 때이다. 이 역사적 과제 앞에 담대히 나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간절히 필요하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태연자약하거나 일부 ‘문제 있는’ 가정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도외시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건강한 자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형태로 구현되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일차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의 인간화를 위해 이 시대 호주제 폐지운동에 앞장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다. 억눌린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28) W. J. C. Weren, "The Five Women in Matthew's Genealogy", CBQ 59, no. 2(4, 1997), 303.

29) 박배희, "호주제여, 국민은 더 이상 그대를 원치 않는다", <여성신문>, 1999. 12. 10.



## 남성이 바라보는 호주제

### 예수께서는 호주제에 대해 뭐라하실까

박동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나에게는 누님이 다섯 분, 형님이 한 분, 여동생이 셋 있다. 딸만 내리 다섯을 낳으셨던 어머니가 생각없이 사람을 대하는 친척들이나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을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 할머니는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아들 없는 둘째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한다. 또 어려서 죽은 형을 대신하여 맏아들이 된 지금의 형은 여러 남매가 한데 앉아 먹는 가난한 밥상에서 홀로 달걀부침 하나라도 특별히 받으면 그것을 누님들에게 나누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나 자신도 어른들로부터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님들이나 누이동생들이 누리지 못하는 작은 특혜를 입을 때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우리 남자 형제 둘은 남녀차별의 전통 때문에 누이들이 불이익 당하는 일을 줄여보려고 소극적이거나 '저항하며' 자랐다고 할 수 있다.

내 큰 아이가 딸인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와 아내는 본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불평등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이제 딸이 곧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되고 보니 더욱더 그렇다. 내 아내 또한 남성중심의 사회 분위기 안에서 때때로 부당하게 제한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도록 차별받았을 것이다. 여성들이 차별 받는 세상에서 나는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남성의 기득권과 혜택을 누리고 주장하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돌이켜 보게 된다. 나는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아내와 내 딸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에서 공평한 기회와 가능성으로부터 제외된다면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균형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난해 초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면접을 하면서 여자 수험생들이 낸 지원서류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 나이 어린 남동생, 아들, 조카가 호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다가 호주제도의 비합리적인 모순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남성들의 기득권과 기부장권이 호주제에 의해 더욱 견고하게 지켜지고 법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 용어인 호주를 국어사전에서는 '한 집안의 어른으로서 호주권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부양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풀이하고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호주제도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호주가 되고, 둘째 아들부터는 결혼하면 곧 바로 이른바 법정 분가가 되어 스스로 호주가 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일찍 남편을 잃은 여성이 실제로 집안의 가장으

로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희생하며 가족을 부양해도 아직 미성년인 아들이, 심지어는 손자가 호주가 된다. 또 딸만 있는 집에서는 그 딸들이 결혼하여 호적이 남편 집으로 옮겨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양자를 들이지 않는 한 그 아버지의 호적은 그 상태로 끝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주'라는 말과는 달리 '가장'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이 '가장'도 보통은 남편,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실제로 집안 경계를 책임지고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에게 '호주'보다는 제한을 적게 받고 쓰인다. '소년 소녀 가장'이란 표현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호주'와 비슷하지만 조금씩 뜻이 다른 말로 '세대주', '가구주', '대주(大主)'가 있다. '세대주' 또는 '가구주'는 여자가 될 수 있다고도 하나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는 모두 남자에게 주로 쓰인다. 이 단어들의 끝에 붙어 있는 한자 '주인 주(主)'는 결국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을 암시한다.

누가 가정의 주인인가?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나 남동생, 아들, 손자만이 가정의 주인일 수는 없다. 가정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 가정의 호주, 가장, 세대주, 가구주, 대주는 원칙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현행 호주제처럼 남자가 호주로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일상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률 관계에서부터 여성을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호주제도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의 벽을 헐러 오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호주제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교회와 상관없는 문제로 보고 방관하는 것은 예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앞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들의 활동이 사회 발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남성중심의 가부장문화가 별 탈없이 계속 힘을 발휘하는 한, 이전과는 견주지 못할 정도로 상처입은 가정과 가족의 숫자는 멈추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그저 가족윤리가 붕괴된 탓으로 돌리며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에게 가족을 해해한다고 정죄하며 한탄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적절한 선택인가?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야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규범에 얽매며,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정을 유지하려고만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보다도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그 형편을 충분히 헤아려서 전문가들이 마련하고 현실에 적용하며 다듬어 나가리라 생각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전 유대 땅에서 멸시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던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땅에 사신다면, 호주제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호주제에 대해 '아니오'라고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아니오'를 외치며 호주제 폐지에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 남성이 바라보는 호주제

### 호주제 이제 폐지합시다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 집안은 함경도 산골 북청서 백두산을 향해 그리고 차일봉을 거쳐가기 전에 있는 벽촌마을에 살았다. 몇 대 조상인지는 몰라도 마을 뒷동산에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내가 중학교 방학 중에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어렴풋이 비문을 해독해보니 그 분은 유배되어 온 사람이었다. 아마도 벼슬을 한 것 같은데 그 조상에 대해서 말하는 친척은 단 한사람도 보지 못했다. 월남한 친척들이 가까운 조상보다는 족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가끔 본 기억이 난다. 그것도 밀양 박씨의 무슨파요 그리고 신라 어느 임금의 후손이요 하는 것이 그들이 혈기를 내며 목청높여 논쟁하던 내용들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도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으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은 적도 없었다.

우리 식구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을 때였다. 친척 한 분이 가장 최근에 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족보라고 보내주시며 우리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위 족보라는 귀한 문서를 내 아내 이선애 목사에게 건네주며 한번 보라고 했다. 이선애 목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것을 방에 내 던지며 “어디 이런 게 있어”하고 말했다. 그제서야 나도 처음으로 그 족보라는 문서를 자세히 봤더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내가 무식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족보에 여자가 기명되지 않은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가부장제가 이렇게 뿌리깊게 우리 문화와 실생활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되었고, 이것이 21세기를 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의 당연한 원칙처럼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적지않게 놀란다.

나는 평생 재판 한번 안 해보고 변호사 사무실 한번 출입해 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개론조차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법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할 능력은 없지만, 법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호주제가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남성위주의 구시대적 가부장제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다. 내가 실직자가 되어 이선애 목사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남자가 호주가 되어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내가 호주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내 아내 이선애 목사가 호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한국의 남성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남녀의 고정된 성역할 개념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양성평등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호주제라는 불합리한 제도가 평등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2000년의 역사와 해방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가 이처럼 성차별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족제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그리스도-남자-여자라는 위계 질서를 기독교의 가족윤리로 내세우며 성차별적인 가족문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 전통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소외된 사람에게 교권을 남용하며 그들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 귀기울이고 치유하고 해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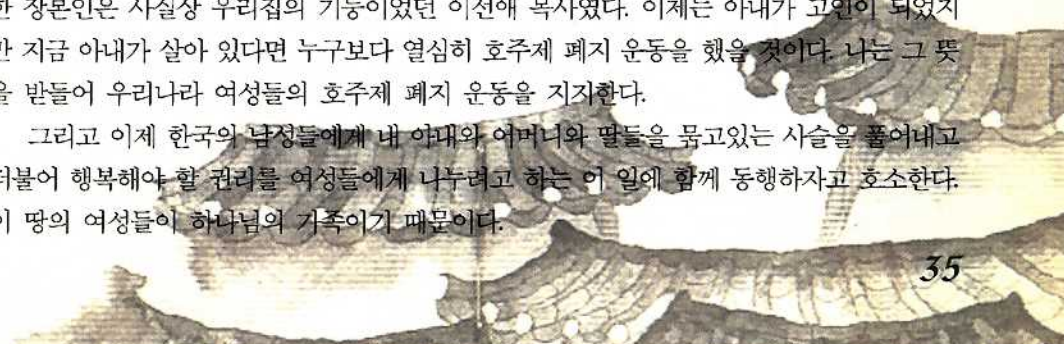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내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이 남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병들고 고통받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불합리한 사회제도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한다면 예수님도 이 세상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울고 계실 것이다.

산업화되어 가고 도시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를 자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족이 평등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가족의 불평등이라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부장적이고 비합리적 가족제도인 호주제는 우리가 서로를 소외시키는 죄를 짓도록 시험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호주제를 유지하여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시키는 우리 사회의 입법 행정 책임자들에게도 그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겠지만, 역사의 어두운 길목마다 등불을 밝혀 길을 찾고, 침묵의 현장에서 예언자의 소리를 외치던 교회가 먼저 이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내와 어머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 우리 집안을 받들고 키우고 발전하고 꿈을 가지게 한 장본인은 사실상 우리집의 기둥이었던 이선애 목사였다. 이제는 아내가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 아내가 살아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호주제 폐지 운동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남성들에게 내 아내와 어머니와 딸들을 묶고있는 사슬을 풀어내고 더불어 행복해야 할 권리를 여성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 일에 함께 동행하자고 호소한다. 이 땅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 호주제 폐지와 평등한 부부생활

이은선 (세종대학교 교수)

I. 남편(감리교 신학대 이정배 교수)과 나는 둘 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 특히 신학과 교회가 우리의 주된 학문 영역이자 활동 장소이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생활과 신학자로서의 삶은 우리의 공공의 영역이 된다. 지금까지 이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우리 부부의 모습이 성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져서 이 글을 부탁 받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는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과연 우리 부부의 삶과 사적인 삶이 평등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가 그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호주제와 관련 하여서.

올해로 우리들의 결혼생활은 21년째를 넘기고 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두 아들이 있으며, 우리가 결혼하기 전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다.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곧바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의 결혼은 처음부터 우리들만의 생활이었다.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은 또한 그해 여름부터 외국생활 적응에의 스트레스와 심한 공부로 위계양을 앓게 되어서 우리들의 결혼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공부를 쉬거나 포기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으며, 남편도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아이를 키우면서 둘이 같이 공부하며 지내는 삶이라 남편과 아내의 일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었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여유 없음과 내핍의 생활이었지만, 둘 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 갈등을 겪지 않았다.

큰 어려움은 남편이 먼저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려는 때였지만,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서울에서는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남편은 직장관계로 서울로 먼저 돌아가고 나는 두 아이와 함께 논문을 마무리지을 때까지 스위스에 남기로 했다. 떠나는 남편은 아이가 둘씩이나 되고 시어머니도 아프시며, 자신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남으려고 한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의 도움과 주위 여러 분들의 배려로 정말 어렵게 학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서 나는 많이 지쳤고 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학교에 재직하게 되어서 더욱 힘들었다. 나는 아이를 둘씩이나 두고 서울로 먼저 간 남편을 많이 원망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내로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많

이 있었다. 그래서 남편과 많이 다투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교회 일과 학교 일로 바쁘기만 한 남편과 많이 갈등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도 시간은 흘러서 나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고, 아이들은 성장해갔으며, 그동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우리는 비록 원주 이씨의 한 종가집이었지만 단출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당시 스위스에서 남편이 혼자 서울로 돌아갔을 때 나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도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한 스위스 여성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었다. 그녀의 남편은 당시 의대 공부를 끝내고 인턴과정에 들어가야 했지만, 아내를 위해서 1년 간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다. 그는 짝먹일 시간이 되면 아기를 데리고 부인의 직장으로 가서 젖을 먹고 오고, 그러한 여유 속에서 되도록이면 아이를 자연육아법에 따라 키우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남편이 아내의 공부를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경력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한국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그리하여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으로 오래까지 힘들어했다.

II.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편과 내가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큰탈없이 자랄 수 있었던 데에는 시어머니 김재수(金在洙, 1921-1989) 여사의 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철이 없었던 며느리를 맞아서 제대로 대접도 받아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스위스에서 돌아와서는 학교일과 바깥일로 분주하게 다니면서 병간호도 제대로 못해 드렸는데도 불평 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큰아들 내외를 유학 보내놓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며 집을 지키셨고, 그리하여 그 수고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나에게 있어서 시집이나 시어머니는 어려움보다는 감사함을 더 불러일으킨다. 그리하여 나는 되도록이면 시부모님의 기일이나 명절을 맞이하여 드리는 차례를 정성스럽게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현실에서 그것들을 표현하는 데 많은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 명절은 지금까지 시집 차례를 중심으로 지내왔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결코 강요하지 않았고, 나도 위에서 든 이유로 명절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집의 경우 일상의 삶은 거의 친정식구들과 친정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절의 경우 시집이 우선이 되어도 별 갈등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학교일과 여러 가지 일로 너무 힘든 경우 남편과 상의하고 동서와 의논하여 차례를 간소히 지내기도 하고, 또 동서가 중심이 되어서 드리기도 한다. 이렇게 지내오는 가운데 친정아버지 기일이나 친정의 여러 행사가 시집의 경우보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으며, 아이들의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 부부는 우연히 성이 같다. 물론 본은 다르지만 같은李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 때도 나의 성이 바뀌는 경험은 하지 않았으며,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부모 성을 같이 쓰기 운동을 한다거나,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할 때도 덜 당황스러울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 오늘날처럼 모든 일과 업적에서 부부가 똑같이 노력했고, 아이들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을 같이 길러왔는데, 아이들의 성이 아버지 쪽의 성만을 가진다거나, 재산이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고, 또한 명절이나 기타 대소사가 남편 쪽의 가족사가 중심이 되어서 행해진다면 참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의 호적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호주승계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 밑에 계셨던 것이고, 나도 결국 혼인신고와 더불어 그 호주 아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그렇게 남편이 호주인 호주제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그에게 종속된 것처럼 느꼈던 것도 아니며, 우리의 경우 그것 때문에 명절을 시집 중심으로 지내는 것도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을 기리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결코 남편 집안의 영향만이 아니라 동시에 나의 친정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므로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호주제는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실제생활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오늘 많은 경우 호주제는 명목상의 제도일 뿐이고,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할에서도 실제로는 주민등록제도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런데도 호주제도가 평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가 이혼이라든가 혼외 자식의 출생 등과 관련한 비상사태가 되면 나타나서 남성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그것은 참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정당하지 않다. 그 법이 있으므로 해서 현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질서나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며, 오늘의 만인인권과 남녀평등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전의 차별적인 관습을 또다시 공공범으로 강제하려고 하니 그 호적법은 시대착오도 보통의 시대착오가 아니다. 또한 그 실행을 위한 국가의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III. 남편과 나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결혼과 더불어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조그마한 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집을 처분하고 다시 집을 장만했을 때 남편의 몫이 훨씬 더 컸지만 그동안 유학생살을 포함해서 거의 10여 년이 지났으므로 공동소유로 하였다. 그 이후 나는 주로 매달의 생활과 보살필 곳을 담당하고, 남편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을 계획하지만 모든 것을 공동명의로 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보험도 들게 되면 같이 들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우리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적 권리를 존중하여 주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남편이 나의 창조적인 생각의 출처를 뚜렷이 밝히지 않고 사용하려 할 때에는 나는 분명히 지적하며, 그래서 남편도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학문세계가 남성위주이므로 나는 때때로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며, 처음에는 그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거나 과격하게 표현했으나, 지금은 점점 온건한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해 나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 아이들의 양육과 더불어 각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년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내는 데 있어서도 서로에게 과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난번 남편이 일본에서 안식학기를 보낼 때에도 그가 막내아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지냈으며 나는 서울에 남아서 큰아이와

함께 지냈다. 보통의 집안살림은 주로 내가 담당해서 많이 하므로 만일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글을 써야 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나는 짐을 싸들고 며칠씩 글을 쓰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동안 남편은 집안 일을 맡아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으로 그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기꺼이 담당했으며, 내가 편안히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준다. 자료도 찾아다 주고, 많은 복사와 참고될 만한 서적들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나누면서 남편과 나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성격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내가, 물론 남편에게도 모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탐색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나 위주가 되는 것 같고, 남편은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일 다하라”고 말한다. 이 말에 대해서 나는 그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반박하거나, 아니면 보통 남성들이 자신들의 삶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사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계획도 맞출 수 있겠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앞으로 우리 부부는 공동으로 저술과 연구를 하며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꿈꾸고 있다.

IV. 나는 예수를 우리의 정신적인 조상으로 모신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별이 나이나 국적이거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존재의 궁극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를 생각하고 매주일마다 그를 기념하고 예배를 드린다. 내가 남편의 가까운 조상과 나의 혈연적 조상을 섬기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늘의 남편이 있기까지 그 희생과 밑거름이 된 어른들께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드려서 그들을 기리고 감사하고 싶다. 그런데 그 조상들 중에서도 특히 내 삶의 기간 중에 만나게 되었다거나 직접 은혜를 입은 조상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더 정성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는 시아버님보다 시어머니가 더욱 그러하며, 또한 먼 3대나 4대의 윗 조상들보다도 바로 윗대의 부모님들이시다. 내가 이렇게 하듯이 나를 아내로 하여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나의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양쪽 부모 모두의 조상을 갖는 것이고, 그 조상들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같이 만났고 영향을 받았다거나, 또는 그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뛰어난 일을 하여서 훨씬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조상이 있다면 나는 아이들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혈통과 뿌리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이런 의미에서의 족보와 같은 사문서는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오늘의 호주제와 같이 국가주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에 의해서 이어지는 가계란 정말 필요치 않고, 또한 남녀의 차별에 의해서 이어지는 가계나 혈통은 정당하지 않으며 자연스럽지도 않은 것이다.

호주제폐지를 위한 연대에서도 계속 밝혔듯이, 오늘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호주제도란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전통문화도 가졌던 가부장주의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 근대 국가의 가부장주의가 보태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민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령을 선포하고 조선후적령을 제정하여 호적법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변경하였다. 그것은 그들 고유의 사무라이 가부장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근대 가족국가의 이념을 세우려는 것이었는데, 즉 천황을 최고정점으로 하여 일본과 한국의 전 국민을 국가가 승인하는 공적 문서에 등록케 함으로써 식민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 근대 국가주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일본 자신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민법 개정을 통해 그러한 호주제도를 완전히 폐지했고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다. 거기에 반해 한국은 그 제도의 핵심골격을 이루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가족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세계가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남녀의 평등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주제가 아니게 되었다면 우리도 하루 빨리 고쳐야 한다.

서구의 역사를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결혼이나 가족, 개인의 성생활의 문제는 온전히 교회의 소관이었고 그것은 종교적인 신성한 성례전의 문제였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이후 루터 자신도 성직자였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오랜 동안의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세속적인 국민국가의 성립이 진행되자, 그러한 일들이 세속적인 공공의 법을 통해서 국가에게 인도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전세계적으로 그 국가에 의한 컨트롤과 통치가 거의 막을 내리게 되었고, 개인들은 점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외국의 신분증명제도는 점점 더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호적제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과 같은 나라는 오히려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여 자녀들이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되며,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는 동적하지 않는다.

V. 전 세계가 모두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국가주의적으로 남녀차별의 호적제도를 고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호주제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다. 즉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이 세상적인 제약도 뛰어넘어서 각자가 궁극자에게 직접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다시 호주제를 고집하는 것은 그 궁극자 아래에 있는 국가를 인위적으로 다시 주인으로 정하고 그에게 종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반대했듯이 국가의 호주제에 반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미 신약성서에서 예수의 가계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 의해서 이어진 것을 보았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의 가계가 성의 구별에 관계없이 남녀모두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인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혈연의 관계를 떠나서

정신적인 혈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서도 개인의 혈통과 뿌리를 밝히는 족보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그것들은 사문서로서 사적인 문화의 전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국가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미개한 모습이지 결코 자신의 가계를 중시하는 역사의식이 아니다. 남편은 말하기를,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당신이니 나는 한 번도 내가 호주라는 의식을 가져보지 않았어”라고 한다. 같이 살되 서로 독립적이고, 독립적이되 부부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나에게서 좋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부부가 있기까지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조상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마땅하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근원적인 조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다.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 더 큰 가족공동체와 창孝를 위하여

이승리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실행위원)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하나다. 사람이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정신을 보장해 주겠다는 나라 말씀이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헌법상의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자유로운 법률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정 신은 민법에서도 보장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다시피 민법은 가 족구성원의 인격권, 행복 추구권, 아내와 어머니, 딸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많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호주제 폐지를 말하게 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민법상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모든 관계를 호주와의 관계로 규정하는 것이 그 내용원리이다. 그 속에서는 개인의 존엄, 양성평등,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법률관계 등의 개 념은 실종되어있다.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는 크게 분류하여 호주를 중심으로 家를 구성하고, 호주권, 호주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를 말하는 것은 호주의 폐지, 家개념의 변화, 호주권의 삭제, 호주승계 관련 규정삭제를 포함한다.

종종 호주제 폐지를 족보를 없애자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딸들의 이름 이 빠져 있는 족보라는 사문서에 찬성하려는 뜻은 없지만 호주제는 족보와는 다르다. 족보 는 그 집안의 혈통내력을 기재한 사문서이고, 호주제는 실제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나 라의 법과 행정제도이다.

우리의 호주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호(戶)의 개념이다. 무엇을 호(戶) 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제가 지금의 호주제도를 이런 식으로 고착하기 전에 우리의 호(戶) 개념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었다. 한 피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 지만 식구(食口, 한술 밥을 먹는 사람)라는 개념도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혈연을 넘어선 생활 공동체 가족이란 말인데,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의 새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가정(戶)의 주인(主)을 일제 식민치하 때부터 남자로만 정해 왔다. 남성의 혈 통으로만 이어지는 혈연가족 중심이다. 그리고 남성이 아닌 사람들, 즉 여성들은 그 남성

호주의 처로, 호주의 며느리로, 호주의 할머니, 시집 안간 여성은 호주의 동생으로 또는 고모 로 그 존재가 인식되었다. 호주제는 여성들을 남성이 아니면 기댈 곳 없어 존재할 수 없는 반신불수로 만들어 버렸다.

호주제도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은 조상 제사 상속의 개념이다. 민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재산 상속에서는 점점 평등권을 찾아가고 있고, 호주도 씨족에서 모든 남자가 사라졌을 때에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씨족에서 남자가 사라질 수 없을 것이다. 남아선호사상이 여아들을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다.) 그러나 조상 제사 상속은 ‘오로지 아들만’이라는 명분으로 여성들을 명절 때만 되면 곱 게 한복 차려입고 부엌에만 있게 한다.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명절은 남성혈통중심의 아버지 의 뿌리찾기 행사가 되고 있다. 고유 명절지키기와 효사상 전승이라는 명분으로 혈연적 가 족이기주의 굳히기가 우리 명절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 가부장적 혈연주의 지키기의 법 적 근거로 호주제가 당당히 한몫을 하는 것이다.

나는 30년 전에 결혼하여 소위 시집을 왔다. 남편에게라기보다는 남편보다 일찍부터 알 았고 유심히 보아온(?) 시어머니에게로 시집을 왔다. 시어머니는 전쟁 중에 스물일곱이라는 나이로 남편과 남북으로 갈라져 혼자 되신 홀시어머니이다. 모두들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했다. 두 이들과 함께 힘겹게 힘겹게 소설같이 살아오신 전형적인 전쟁 이산 가족이다. 그러나 그 척박한 시절에도 시어머니의 삶은 참 당당하셨다. 자식들에게 뿐만 아 니라 친정의 많은 형제, 자매, 조카, 부모님에게도 정신적으로 현실적으로 기둥이 되셨고, 피난시절 어려운 세월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전쟁고아와 어려운 제자들의 사실상의 어머니 가 되어, 아들과 딸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면 방으로 하나 가득하였다.

그러니 사실상 우리 집안의 호주는 시어머니이셨다. 그러나 호적상의 호주는 50년이 넘 게 아직 생사를 모르는 시아버지이다. 아들인 나의 남편도 3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으니 기억 에도 없고 뵈지도 못한 시아버지가 호적상의 호주이다. 가족에 대해서 권리의무 관계를 하 나도 하지 않았어도 호적에는 호주로 남아 있다. 1990년 개정된 민법에서는 호주의 권리의 무 관계를 삭제했다고 해도, 50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호주는 단지 호적을 적는 데 기준이 되는 하나의 기호(記號)로 우리 가족 안에 아직 존재하다.

우리 가족은 반백년이 넘게 아직까지도 그리고 새로운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 도 호주승계를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시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으로서 나는 사실상 호주 승계를 하지 않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호주승계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호주제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계혈통중심, 남성중심의 관념 으로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호적 기재의 기준인으로 별의미없는 기호 가 되어 버린 호주를 승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호주제 폐지의 뜻을 담은 한 가 지 표현이기도 하다.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아직도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대부분의 관계가 친족관계로 좁혀진다. 나는 결혼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착한 며느리가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기쁨이라 여기며 착한 며느리 신드롬에 빠져 효부소리 들으며 열심히 살아왔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하시며 친어머니와 딸 못지않은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만이 아닌 같은 시대를 사는 선후배 여성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며 가족관계를 넘어 여성 동반자로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이제 시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며느리인 나를 친구라 여기시며 더 가까이 하였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확장되었다.

얼마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다. 나는 아들이 결혼을 할 때 폐백도, 예단도, 이바지도 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 이 모든 절차 속에 우리가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호주제의 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직 여성인 며느리에게 나는 두 가지 부탁을 하였다. “며느리와 아내로만 살지 말고, 장00으로 살아라”, 그리고 “각자 부엌은 각자 책임지자”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시어머니와도 한 시대를 사는 동지였고, 나의 며느리와도 한 시대를 사는 동지로, 자매로 살고 싶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되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미풍양속이 사라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전통적인 효사상은 없어지고 노인들은 버려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호주제가 효의 울타리가 되어 준다고 믿고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울타리 속에서 여성들은 아들을 꼭 낳아야 했고 나이들어 늙으면 그 아들에게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여성들은 ‘딸 가진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오히려 핏줄로 울타리를 치며 가족을 배타적인 집단을 만든다. 이제는孝가 가족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어서는 안 된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는 더불어 사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효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가족의 개념이 더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다. 혈연을 넘어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참효의 실현이다. 혈연이라는 이기적인 집단을 넘어 생명공동체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모두를 소외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의 하나로 가족별 호적제도(가족부제도)와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그 대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고 논의되어 가는 중이지만, 나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신분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개인별 신분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검색의 용이성보다도 개인의 독자성이 존중되어 의존성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가부장문화, 우리 교회에는 안 어울립니다

박후임 (새터교회 담임목사, 기독교민회 회장)

우리는 우리 교회를 스스로 여성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성교회라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 가부장적인 것을 배제하는 교인들의 문화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는 양성평등한 문화뿐 아니라 아이들도 주인인 교회문화를 소개하고자 한다(물론, 완전하지는 않으며 부단히 노력중이다). 우리 교회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교회 소개를 먼저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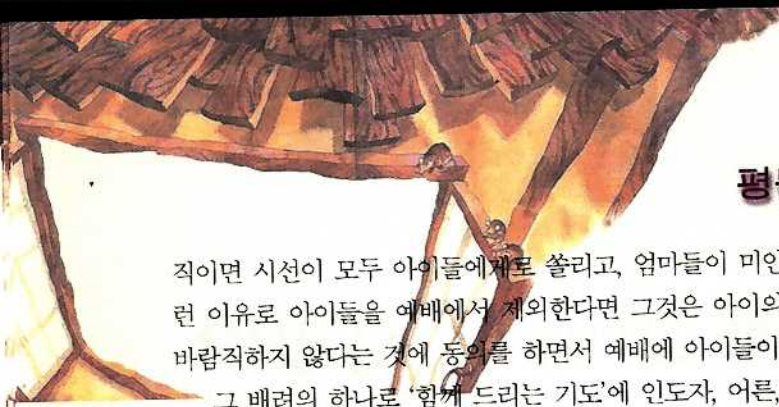
새터교회는 서울 금천구 독산 1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새로운 땅을 일구자’는 의미로 설립되었다. 새터교회는 기독교민회에서 87년 3월, 가난한 여성들과 더불어 살고자 열었던 새터 어린이방이 그 모태이다. 교회로 문을 연 것은 같은 해 11월이었다. 구로 공단과 인접해 있어서, 이 지역은 소위 ‘별집’ 혹은 ‘닭장’이라고 불리는 작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영세 하청업체들이 많은 곳이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별집을 차지하고 있던 공장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노동자들로 바뀌었으며, 골목마다 가득한 중국어 간판과 아주 빈번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새터교회는 이 지역의 가난한 여성,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영·유아를 위한 ‘새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새터 어린이학교’(공부방이라고도 부르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60%, 장애아동이 15%), 지역주민들을 위한 ‘새터 녹색가게’(상설화된 재활용센터로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후임 목사와 안지성, 한선영 전도사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어린이학교에서 10명의 실무자(교회 평신도, 모두 여성인 것이 아쉽긴 하다)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새터교회는 아담한 3층 건물로, 건물 바깥에 십자가가 없다. 예배 장소인 지하실은,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으며, 강대상이 놓여 있는 단은 야트막하여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이 기어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턱이다. 그래서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 회중의 눈높이가 잘 맞는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20~30대이다. 40대가 몇 명 안되는 젊은 교회.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식구들의 숫자가 35-4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이다.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

99년도부터인가 갓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움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직이면 시선이 모두 아이들에게로 쏠리고, 엄마들이 미안해하는 분위기를 보면서, 만약 그런 이유로 아이들을 예배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엄마도 제외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예배에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다.

그 배려의 하나로 '함께 드리는 기도'에 인도자, 어른, 어린이의 순서를 넣고, 성경 봉독도 어린이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른 설교 전에 아이들을 위한 설교 순서를 넣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린이 설교를 들은 후에 3층으로 올라가서 분반활동을 한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성찬식에는 분반활동 중인 아이들도 함께 하도록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편이다.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전 교인들이 동그렇게 모여 배에 손을 얹고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준다. 기본적으로 교인들 사이에는 내 아이뿐 아니라 모든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생각이 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아이에게 또, 교회공동체에게 부모가 자신의 바람을 고백하도록 한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아이들이 분반 공부하러 올라가고 난 후의 썰렁해지는 예배실의 분위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배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예배에서 아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어른 중심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 여성성이 살아 있는 교회문화

여기에서 말하는 여성성은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분리되는 이원론적 의미에서의 여성성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평등한 의미로의 여성성을 말한다.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현 사회상황에서 여성성이 눌러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표현하여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안에 잠재된 여성성을 살리고 여성 안의 남성성을 고양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다. 여성성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죽어 가는 것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살핌과 배려라는 여성성을 교회 문화 곳곳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 예배

예배 인도는 12명의 집사가 한 달씩 맡아서 진행을 하며, 대표기도인 우리의 기도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며, 모든 평신도에게 열려 있다. 설교도 평신도에게 연 4회 열려 있다. 특별예배를 준비할 때는 각 터)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을 함께 한다.

1) 밝은터(0세-6세), 푸른터(7세-초등학생), 오름터(청년회), 희망터(여전도회), 섬김터(남선교회). 각 조직의 이름은 98년도 공동의회 때 각 조직에서 스스로 지었으며(푸른터와 밝은터의 경우 어른들이 지어주었다) 지금껏 사용하고 있다. 교회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없다. 교인들이 젊어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회장이라는 이름대신 '터지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비상!공동체

예배 후에 있는 공동식사와 설거지는 반드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며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한다. 목회자라고 해서 먼저 먹거나,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모두 줄을 서서 차례대로 먹고 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것에서도 목회자라고 제외되지 않는다.

#### 공동식사 후의 차 나눔과 각 터)별 모임

공동식사 후엔 모든 식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각 터)의 식구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서로의 관심들을 주고 받는다. 삶이 전체적으로 나누어지며, 이후 각 터)별로 성경말씀과 생활 나눔이 함께 진행된다. 주중에는 성경공부 모임과 영성 모임이 있다.

새터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양성평등한 문화와 생명 살리는 일을 힘닿는 대로 하고 있다. 권위주의나 가족이기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며 서로의 경제형편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는 모습으로 인해 소외당하거나 소외하지 않는다. 아이라고 배제하지 않으며 여성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평신도라고 목사와 구별하지도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평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새로운 땅 일구기가 다른 교회들에도 전염되어 하나님의 식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평화가 모든 교회들마다 깃들여 지기를 바란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예배

함께 노래 부르기 ..... 다함께

노래 인도 : 기독교민회 노래팀 (김경아, 배영미, 배영수, 노경신)  
반주 : 피아노 - 한상희 / 장구 : 이은영

예배를 기다리며 ..... 다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참여자들이 예배실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안내에 따라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초정의 말씀 ..... 이문우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남성중심, 혈통중심으로 규정하고 분리하는  
호주제 안에 여성의 이름은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는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제 폐지 기독교여성연대'는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를  
불평등한 가족, 이기적인 가족, 배타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우리 사회 전체를 질퍽발이 공동체로 만드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교회여성들이 평등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범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속에서 남성중심의 혈통주의로 고통받은 성서의 여성들과  
오늘날 남성중심 혈통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호주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이 만나  
서로 치유하고 화해하며, 호주제라는 불편한 과거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평화와 해방의 약속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는  
예수 가족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예배는 2002년 5월 16일 '호주제폐지 기독교여성연대'가 함께 만든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기독교여성문화제'의 예배문이다.



# 예배 순서

\* 표는 \*일어서서

인도 : 이문우(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촛불 점화 ..... 말은이

(각 단체에서 한사람씩 촛불 들고 나와 초정의 말씀을 한 인도자의 초에서 차례로  
불을 붙인 다음, 함께 제단 위에 촛불 올려놓는다.)

\* 예배로의 부름 1 ..... 운명선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동등한 존귀  
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하나님 이 예배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 부름에 응답하며 ..... 오소서 오소서 .....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창조 의 - 성 령 우리 가 - 한 몸 이루 게 하 - 소 서

\* 예배로의 부름 2 ..... 정태호  
(기독교민회 회장)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통이나 육정에 있지 않으니, 아버지의 가문 안에 이름 없이 살  
아야 했던 어머니와 딸들이여,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핏줄로 연결된 우리는  
하나이니 기뻐하며 이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 부름에 응답하며 ..... 오소서 오소서 .....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평화 의 - 성 령 우리 가 - 한 몸 이루 게 하 - 소 서

\* 예배로의 부름 3 ..... 송영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생명을 잉태하고 낳음으로 생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로  
지 아들 낳아 대를 잇는 도구로 만들어 버린 가부장제 속에서 억울하게 고통 당하

## 28주 제 패지를 위한 기록여성예배

고 핍박받은 여성들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 부름에 응답하며 오소서 오소서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생명의 - 성령 우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 예배로의 부름 4 강필수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갱신위원회 위원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어머니이며 형제·자매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차별하고, 내 가족과 타인을 분리하여 구별짓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아픔으로 슬퍼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이땅의 교회여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하나님 가족 공동체의 새 모범이 되도록 세우시니 소망을 품고 이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 부름에 응답하며 오소서 오소서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사랑의 - 성령 우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 예배로의 부름 5 다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의 주인은 아버지·남편·아들이라며 내가 내 삶의 주인되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호주제라는 낡은 과거 안에 갖혀 해방을 기다리는 자매들이여, 남성중심의 혈통주의에 종살이하던 자매들이여, 새 하늘 새 땅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으니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새 날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입니다.

\* 부름에 응답하며 오소서 오소서 다함께



오 소 서 - 오 소 서 해방의 - 성령 우리 가 - 한 몸 이루게 하 - 소 서



## 고통의 현장

말은이

(무대 앞 스크린에 호주제와 관련한 법조문이 비쳐지고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 부기입적제도

여성은 결혼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한다. 호주인 남편이 없는 여성은 자녀나 친족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한다. (민법 제781조, 제826조)

### 혼인외자 동의에 있어 남녀차별

여성이 혼인의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고자 할 때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784조, 제①항, 제②항)

### 부모로서 권리에 대한 남녀차별

이혼시 여성은 친가본적 또는 일가창립하여 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그 자녀는 호적에 올릴 수 없고,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민법 제787조)

### 호주승계 순위에 있어서 남녀차별

호주승계는 아들, 손자미혼인 딸·차·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여 남자를 우선 순위로 하고 남자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여자가 2차적으로 계승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984조)

소리 : (어둠속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여지들인 사라와 하갈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라헬과 레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라와 하갈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호주인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으니 이는 곧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위계질서가 지켜져야 세상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질서입니다.

사라 : 저는 사라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신앙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과 갈등도 돌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고 갈등을 회피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형통 중심문화 속에서 서로의 인격을 파괴하고 반목하며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자매 같은 하갈을 광야로 내쫓을 때에 그는 침묵하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하갈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대회

하갈 : 그렇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낳으라는 가부장제의 광기가 사라와 나를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 아이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그 뜻을 압니다. 사라의 꾀박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가부장제의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징울림

배영수  
(기독교여성회)

소리 : (어둠속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아들을 못낳는 여자, 남의 집 가문의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딸이요? 딸 아무리 많이 낳아 봐야 무슨 소용 있나요? 딸이야 출가외인이고 남의 집 귀신인데. 저요 아들 하나 보겠다고 낳다보니 딸만 줄줄이 낳았습니다. 일곱인가 여덟인가. 몇이든 소용있나요? 요즘은 미리 검사해 보고 딸이면 떼어버리기도 하지만...어쨌든 마침내 아들 하나 낳고서야 사람대접 받게 되었지만요. 그보다는 나 때문에 대가 끊어지고 호주제를 낳지 못해 우리 집안 끝장날까 봐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호주 없이 어떻게 세상이 유지됩니까? 그런데 호주제 없다면 여자들은 어디에 정착합니까?

다말 : 아들 낳아 대를 잇기 위해 저는 성전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이용해 아들 낳아 대를 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가문의 대를 이었다는 공로가 인정되어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족보에 나오게 된 저는 다말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라고요? 가문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요? 남편을 둘이나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아들을 낳는 길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영광이 그건가요?

징울림

구미정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소리 : (어둠속에서 목소리만 들린다.) 이혼한 여자가 어떻게 아이의 장래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야 어머니가 키우도록 하지만 아이들의 호적만큼은 아버지의 호적에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예비없는 자식을 만들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재혼을 하더라도 엄연히 씨가 다른데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성은 혈통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암 안 되고 말고 뭐? 아이들이 혼란스럽다고? 여자가 재혼 안 하면 되잖아!



마리아 :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흠어내시고 보잘 것 없다는 이들을 오히려 높이시기 위하여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았습니다. 나에게서는 너무나 큰 기쁨이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되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자식을 빼앗긴 느낌이 드는 것은 웬일입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요셉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내 자식인데 요셉의 자식이라 하니, 다윗의 후손이라 하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다.

징울림

변주희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몸으로 드리는 간구

기독교여성회 여성팀

(남성중심의 혈통주의와 호주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아픔을 춤으로)

고백 기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인도자 : 김택희 (교회갱신위원회 위원), 최영숙 (사회선교위원회 위원), 박귀분 (교회갱신위원회 위원)

인도자 :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자신의 형상대로 똑같이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여성과 남성을

서로 돕는 존재로서 이 세계에서 살도록 하셨음을 믿습니다.

다함께 :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입니다.

인도자 :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차별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한 남성중심 제도인 호주제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아들을 낳지 못해 밀시와 천대 속에서 고통 당하고, 단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천 수만 여 명의 딸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회

또한 아들로만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강화하며, 아들선호사상으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을 어그러뜨리고 파괴하는 호주제를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제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고,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다함께 :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호주제의 폐단들을 방관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인도자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혈연에 얽매어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에게만 집착하고, 불행한 사람, 불편한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다함께 : 하나님.  
여성과 남성을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 땅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여 서로를 존엄한 인격체로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양성 평등한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백의 찬양 .....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 다함께

성서봉독 ..... 갈라디아서 3:28 ..... 박수현  
(NCC 여성위원회 위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표준새번역)

특송 ..... 달리다쿰 ..... 기독교민회 노래팀



말씀 선포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예배반 외

### 드라마 : “누가 나의 가족입니까?”

출연자 : 이승리, 전순란, 변주희, 구미정, 권미주, 배영수, 한상희, 이선희  
연출 : 장수철 (극단 아벨 대표)

- 1 : (나오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들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닌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서도 좋습니다. (사이클 두고) 아무도 안가시는걸 보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시군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시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가족들입니다. 그럼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죠. (퇴장)

(낭독자 나와서 마태복음 12:47-50의 본문을 읽는다)

### 마태복음 12 : 47-50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 말을 전해 준 사람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하고 말씀하셨다.” (표준새번역)

(낭독자 읽고 나서 퇴장하면 성서의 여성들 사관, 하갈, 다말, 나오미, 룻, 마리아 나와서 앉고 1 다시 나온다)

- 1 :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나오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어렵겠습니다. 그냥 돌아들 가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참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저, 저는 가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들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다. 언제 말씀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 2 : (객석에서 일어서며) 이봐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여기 누가 오셨는지 제대로 전했어요?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록어성애

- 1 : 그럼요.
- 2 : 그냥 보통 가족이 아니라 조상 할머니들께서 오셨다는 말씀도 했나요?
- 1 : 그랬다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할머니? 조상 할머니라구요?
- 2 : (무대로 올라가 다말 옆에 서며) 여기 계신 이분은 다말 할머니예요.
- 1 : 예? 다말이요?
- 2 :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 할머니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 1 : 아,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 2 : (나오미와 손을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 두분은 롯 할머니와 시어머니인 나오미 할머니. 아시겠어요?
- 1 : 저, 정말이세요?
- 2 : 그뿐인줄 아세요? (사라와 하결을 가리키며) 여기 이분은 우리들의 왕 할머니이신 사라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하갈 할머니.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 1 : 우와, 정말 조상 할머니들이 총출동하셨네요.
- 2 :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셨다는 걸 제대로 전했나요!
- 1 : 그, 그게 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 2 : 말 더듬고 있지 말고 어서 가서 다시 전하세요.
- 1 : 예, 아, 알겠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려고 한다)
- 다말 : 됐어요. 그만 뒤요. 갈 필요 없어요.
- 1 : (나가다 말고 돌아서 2의 눈치를 살핀다)
- 2 : (다말에게) 할머니 왜 그러세요. 갈 필요없다구요?
- 다말 : 그래. 우리 손자 예수 말이 옳아요. (옆의 롯에게) 안 그래?
- 롯 : 옳고 말구요.
- 2 : 섭섭하지 않으세요? 가족을 모른 척 하는데도 섭섭하지 않으세요?
- 롯 : 섭섭하냐고? 섭섭하기는커녕, 3천 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며 통쾌한 걸. 안 그래요? 어머니?
- 나오미 : 그래.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고 듣고 싶던 말이냐.
- 2 :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고 섭섭해 죽겠는데.
- 다말 : 내 보기에 여기서 섭섭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어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떠신가?
- 마리아 : 예, 저도 전혀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 다말 : 그럼 저렇게 키웠으니 자랑스럽고 말고. 나도 그런데 어미로서야 더할 나위 없겠지.
- 나오미 : 과연 마리아답게 키웠어.
- 롯 : 그럼요. 어떻게 나온 아들인데.



- 사라 : 그래. 우리도 정말 어렵게 아이를 낳았지만 마리아에게야 비할 수 없지. 그러니 더 자랑스럽지.
- 2 : 나원 참.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어요? 자랑스럽다구요? 할머니들이 이리시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거라구요.
- 다말 :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안 바뀐다니?
- 2 : 예. 그저 손자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오냐오냐 하시잖아요. 지금 아들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호주제 때문에 이렇게 모였는데. 할머니들은 가문의 혈통을 잇는 일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놓고선, 결국 가문의 씨받이 역할밖에 하신 게 뭐 있냐구요. 그랬는데 이제 무시까지 당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물러나시겠다구요?
- 다말 : (웃으며) 이 아이가 이거 성질이 보통이 아니구먼.
- 나오미 : 그러게요.
- 2 : 할머니!
- 나오미 : 그래. 진정하고 이리 와서 앉아봐라. 우리가 왜 그러는지 말해 줄테니까. 궁금하지?
- 2 : 그래요.
- 나오미 : 누가 내 가족이냐.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이 말을 듣고 느끼는 게 없냐?
- 2 : 섭섭해요.
- 나오미 : 그래도 (다말을 보며 웃는다)
- 다말 : 애야, 이 말이야말로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 2 : 무슨 말인데요?
- 나오미 : 그래. 금방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린 예수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안다. 그래서 이렇게 감격하는 거고.
- 다말 : 그래. 우린 듣기 전까진 그런 말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보니 그래. 바로 그거구나. 싶다. 내가 평생하고 싶은 말 한마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병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 속에 한으로 맺혀 있던 한마디가 바로 그 말이었다.
- 롯 : 그래요, 할머니. 우리 중 누군가 벌써 해야 했던 말이고, 할 수 있었던 말인데 말이에요.
- 나오미 : 그렇지만 차마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 생각했다손 쳐도 말할 용기도 없었을 테고, 그런 말을 했다간 우리들의 역사는 끝났겠지.
- 2 : 그렇지만 세상이 벌써 달라지고 훨씬 더 좋아졌을지도 모르죠.
- 나오미 : 글썽하다. 그랬을 수도 있겠지.



다말 : 아무튼 우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되었는데, 사실 우리처럼 괴로움을 겪은 사람들이 또 있겠나? 이제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족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야. 그 뭐냐 요즘 말로 너 아까 뭐라고 했지?

2 : 호주제요?

다말 : 그래 그 호주제가 뭔가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들이지.

룻 : 그러니 누가 내 가족이냐는 그 한마디가 어떤 말이겠나? 이제 알겠나?

2 : 알 듯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오미 : (말을 끊으며 회상하듯) 그래,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도 삼종지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딸이었다가, 남편을 따라 이방 땅으로 갔고, 거기서 남편과 아들 둘을 모두 잃었지요. 그렇게 되자 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와서도 나는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는 여분이었지. 그냥 불쌍한 과부.

룻 : 어머니의 고향과 겨레를 제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며 함께 부둥켜안고 울었지만, 와보니 저는 아버지의 고향까지 떠난 과부였지요. 아들이 없으니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영원한 이방인에다 과부였지요.

2 : 그래서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이렇게 모시고 왔잖아요.

룻 : 그래, 잘 데려왔다. 덕분에 우리를 영원한 이방인으로 분리시켜 놓은 제도의 족쇄를 풀었으니 너무나 고맙구나.

나오미 : 내가 누구던 어떤 처지에 있던 내 권리를 내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겠나?

2 : 모르겠어요. 전 지금 혼란스러워요.

다말 : 너 이리와봐라. (온근하게) 너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한 일에 대해 솔직하게 한 번 얘기해봐라.

2 :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다말 :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속으로 욕도 했겠지? 하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고는 내 권리와 내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만일 다른 이유로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참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아니면 시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였다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가문의 대를 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뭐 대단한 일을 한 여자로 말이다. 그러나 그뿐이지. 내 심정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 여자의 몸은 도구일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 선언은 우리의 존재를 회복

시켜주는 말이거든.

2 : 좋아요. 그렇지만. 전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남자에요. 아들이었다구요. 만일 마리아님이 그때 딸을 낳았다면, 여기 계신 할머니들이 다 딸을 낳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왜 여성들은 그 말을 못했나요. 당사자인 여성들이 당당하게 먼저 그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어쨌든 남자에게서 그 말을 들었잖아요.

다말 : 그래서 그게 섭섭했나.

2 : 예.

다말 :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한 말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실천을 하느냐가 아니겠느냐?

2 : 그, 그건 그렇지요만. (사이, 뭔가 생각난듯이) 그렇다면 예수의 계보는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할머니들이 도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계보에도 할머니들이 중심인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룻 : 그렇게 되면 좋겠지. 아마 우리 예수도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까?

2 :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라 할머니와 하갈 할머니는 서로 손만 붙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말씀 좀 하세요.

사라 : 글썄, 난 미안해서 할 말이 별로 없구나. (하갈을 보며)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었는데. 한 남자의 가문에서 누가 더 기득권을 차지하냐로 우리가 다투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 안타까워. (하갈에게) 그때 우리가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갈 : 그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면 모두 한가족, 한공동체라는 확신을 우리가 다 가졌더라면 남자니 여자니, 가문이니, 호주제니 따질 필요도 없었고, 씨받이도 필요 없었겠죠.

사라 :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나온 이유가 호주제 때문인데. 우리 손자 예수의 선언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줬어요. 앞으로는 우리와 같은 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2 : 그런데요 할머니들 불만이 있어요.

다말 : 또 뭐?

2 : 왜 할머니들은 말끝마다 우리 손자 우리 손자 하시는 거예요.

다말 : 아이구, 그래 맞다. 그건 이 할미가 잘못이다. 할머니들의 습관이라 나도 모르게. 그래 손자면 어쩔고 손녀면 어쩌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곧 예수의 친구이고 가족이지. 안 그래?

룻 : 호주가 누군지 따질 필요도 없고, 누구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고민할 일도 없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록어성애배

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어찌나 이만하면 되었나?

2 : 예, 할머니를 말씀 감사하구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들이 해야지요

말씀에 응답 ..... 다함께

(중이에 자신의 느낌을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적고, 몇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한다.)

감사의 찬양 ..... 새 하늘과 새 땅 ..... 다함께



1. 새 하늘 새 땅 에 새 사람 되 - 어  
2. 낮아 지고 높 아 진 예 수 의 하 신 일  
3. 우 리 는 예 수 안 에 새 로 운 가 - 족



하 나 님 장 - 막 의 한 식 구 되 - 면  
사 랑 과 공 - 의 의 십 자 가 지 - 고  
들 어 라 보 - 아 라 너 희 가 할 - 일 을



분 월 과 차 - 별 이 다 시 는 없 - 고  
온 누 리 밝 - 히 는 등 불 이 되 - 니  
가 까 운 이 - 웃 도 먼 - 데 사 람 도



생 명 수 샘 물 로 충 족 하 - 리 라  
하 늘 도 이 땅 도 새 것 되 - 리 라  
평 화 의 만 남 을 이 루 게 - 하 자



예 수 님 은 우리 의 새 하늘 새 - 땅



그 삶 에 새 - 로 운 역 사 빛 난 - 다



## 성만찬

집례 : 안상님 목사

배찬위원 : 이승리, 전순란, 변주희, 구미정, 권미주, 배영수, 한상희, 이선희

성만찬 초대 ..... 집례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예수와 한 가족이 되기로 작정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십니다. 호주제의 속박을 풀고 남성과 여성이 화해하고 서로 평등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식탁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께서는 평화가 아니라 짐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짐으로, 차별하고 분리하는 모든 속박을 깨뜨리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모아 참여하는 이 식탁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평등한 예수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식탁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사 ..... 다함께

집례자 :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다함께 : 주 예수여,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임재의 기원 ..... 다함께

집례자 : 자비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함께 :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여성대회

분명례

다함께

집례자 : 이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다함께 : 우리는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하시는 하나님님의 영성을 배웁니다.

집례자 : (떡을 들고) 이 떡은 분열을 극복하고 화해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함께 :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며 화해의 세상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집례자 : (잔을 들고) 이 잔은 폭력과 차별을 넘어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함께 : 우리는 이 잔을 마시며 평화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성만찬 나눔

나누기

다함께

(노래를 부르며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1. 이 떡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2. 이 잔을 나눔은 우리의 사랑을 나눔이니



그 대들 과 나는 이 제한 못음 가진 벗이라  
그 대들 과 나는 이 제한 울음 가진 벗이라



그 대들과 나 한 하늘에서 났듯이



그 대들과 나의 가슴에 한 피가 흐르고



그 대들과 나 한 하늘을 살듯이



그 대들과 나의 갈 길도 오직 한 곳이라

\* 함께 결단하며

다함께

### 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기독교여성선언

원 편 :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의 어머니들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며  
남성중심의 역사로 고통받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딸들이 살아야 할 내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길과 빛이 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 따라 길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짐을 함께 합니다.

오른편 : 이제 우리 속에 잠든 침묵을 깨우고,  
우리 속에 박힌 억압의 못을 뽑아내고,  
우리 속에 무성한 불평등의 잡초를 걷어내기 위하여  
호주제를 폐지하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기독교여성들의 결단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정의와 평화 평등의 세상을 위한 성령의 바람이 되어  
이 땅을 새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선언 :

- 우리는 여성의 온전한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 기독교민회 (박후임 부회장)
- 우리는 성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자녀들의 성씨 선택권 확보에 나서야 함을 선언한다. / NCC 여성위원회 (김혜숙 위원)
- 우리는 여아낙태를 조장하고, 남성중심의 부계혈통을 강화하는 호주제 폐지를 위해 힘을 것을 다짐한다.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문숙 총무)
- 우리는 혈연가족을 넘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며,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한국염 총무)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계혈통주의를 넘어선 모범이라 고백하며, 호주제 폐지와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호주제 폐지 기독교여성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독교성예배

\* 다짐의 찬양 ..... 야훼! 우리 하나님 ..... 다함께

(찬양을 부르며 모두 앞으로 나와 동글게 원으로 둘러서서 응답의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옆사람과 함께 묵는다.)

1. 바 람 물 고 서 오 실 이  
 2. 불 꽃 해 집 고 오 실 이  
 3. 하 늘 쫓 개 고 오 실 이

늘 랍 고 크 - 신 팔 일 으 켜  
 험 있 고 강 - 한 팔 회 들 러  
 리 - 락 기 - 인 도 > = : 미 - 리

잡 - 은 것 - 곧 게 떠 - 실 이  
 못 - 된 것 - 바 로 잡 으 실 이  
 두 러 워 하 는 백 성 구 하 실 이

맨 발 로 어 둠 속 을 더 들 어  
 온 땅 을 가 로 질 러 끝 까 지  
 온 세 상 신 명 나 게 뛰 놀 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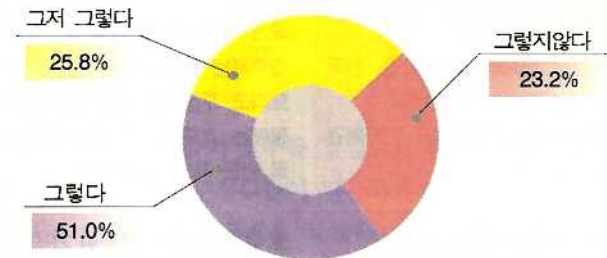
끝 - 내 오 시 고 - 야 말 이 -  
 그 - 빛 비 주 고 - 야 말 이 -  
 사 랑 노 래 - 부 르 게 할 이 -

\* 공동체 축도 ..... 다함께

(옆 사람의 이마에 향유를 발라주며 한마디씩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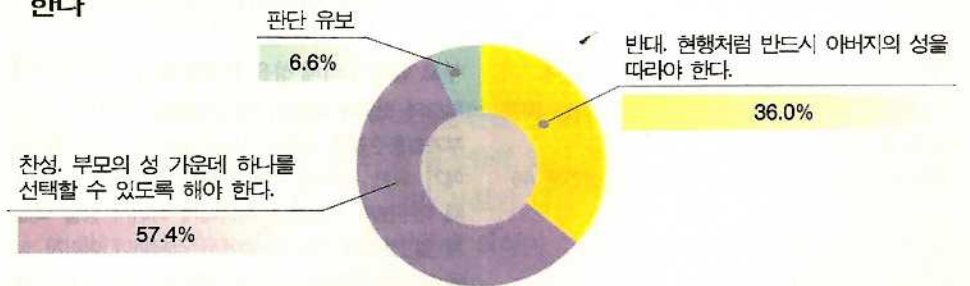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거부장적인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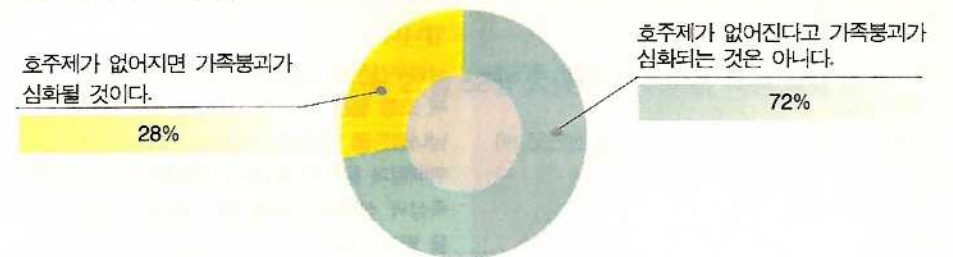
<한국 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사의 사회·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한신대학교 신학연구소 2003. 3>

2. 자녀의 성을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다음 핫이슈토론 2003.5.9-6.8 / 네티즌 80,230명 참여>

3.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족의 붕괴가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1. 12>

\* 부록에 실린 내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호주제 폐지 홍보 리플렛 '호주제 너머 평등한 가족, 신나는 사회로'에서 발췌한 것이다.

## 호주제 진실! 그것이 궁금하다

### 호주제는 전통가족제도입니다.

호주제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에 바탕을 둔 한국 가족제도의 중심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5월20일 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기자회견 인사말 中)

###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됩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진다. 이혼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녀는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파괴범'이다. (5월15일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과의 인터뷰 中)

### 성은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합니다.

성(姓)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문'을 없애는 행위이다. (5월20일 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선언문 中)

### 호주제는 남녀 본성에 알맞은 정당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가족제도는 남녀의 본성에 알맞은 정당한 제도이다. (5월20일 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선언문 中)

### 호주제는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물입니다.

호주제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

### 호주제 폐지는 평등한 가족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또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2위라는 것은 오히려 호주제가 가부장적 사고와 부부갈등 조장,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다.

### 부모 협의에 의해 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를 강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통념을 고려해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될 것이며, 적어도 법에서 강제하여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혼 또는 재혼가정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할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 호주제는 국제적 비난을 받는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 강제 조항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가족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주요 골자

호주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호주를 정점으로 강제적이고 일률적으로 일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하게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78조 삭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가족공동체와 전혀 부합하지 않고, 호주와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관계로 고착화시키고 부부를 차별하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여 이를 삭제함(안 제779조 삭제)

자녀의 성 선택시 원칙적으로 부계혈통만을 강제하고 모계혈통을 부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결정함에 있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함(안 제781조 삭제 및 제865조의 2제1항 신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게 함(안 제865조의 2제3항 신설)

2003년 5월 27일 52명 의원 발의 (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편 제2장 <제778조(호주의 정의) 내지 제789조(법정분가)·제791조(분가 호주와그 가족) 및 제793조(호주의 입적과 폐가) 내지 796조(가족의 특유재산)>을 삭제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6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5조의 2(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 형제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모중 일방을 알 수 없는 자는 다른 일방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제966조(친족회의소집)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친족회에서주의의견개진)중 “傍系血族및戶主는”을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 제8장<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원인) 내지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소)·제984조(호주승계의순위) 내지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생모)·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승계순위) 및 제991(호주승계권의포기)조 내지 제995조(승계와권리이행의승계)>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 가족제도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 등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 가족제도가 폐지되고 실질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가 만들어집니다. '호주'가 폐지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족은 그대로 존재하며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에 가족관계가 드러납니다.

2. 신분등록제도

사생활 정보가 보호되고 양성평등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족부 또는 1인1적)가 만들어집니다.

기본가족별 편제방식(가족부)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은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인하면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가족부(현재의 '호적')를 만들고, 가족부 검색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 중 1인을 '기준인'으로 지정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각각 새로운 가족부를 만들고,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족부를 다시 만듭니다. 이혼시 자녀는 기존에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는 반면, 친권자가 속한 가족부에 기록합니다.

1인 1적 편제방식

1인 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호적')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되고,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간단한 신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호주제 불만 및 피해사례 전국신고전화

[신분등록표]

본인	성명	김본인 [金本人]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비고	
		이본인 [李本人]							
	주민번호	650101-2234567 ㉠			박이남	650501-1567123 ㉠			이혼
	생년월일	1965년 1월 1일 10시 30분			최삼남	620601-1671234 ㉠			사망
	본	서울(김씨)	성별		여자				
		안양(이씨)							
부모	구분	성명	주민번호		구분	성명	주민번호		
	모	김일녀	410201-234567 ㉠		아들	박일자	901011-1781234 ㉠		
	부	이일남	380301-1456712 ㉠		딸	최이자	941112-2812345 ㉠		
	양부	Aby. M.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양자	정삼자	971213-1923456 ㉠		
	양모	Emy. F.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본인의 신분사항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출생, 1965년 1월 30일 모 김일녀가 신고 ㉠								
	1966년 2월 3일 부 이일남(380301-1456712) 인지신고, 성과 본을 변경 ㉠								
	1967년 3월 4일 Aby. M. American과 Emy. F. American의 양자로 입양신고 (부 이일남과 모 김일녀의 입양승낙) ㉠								
	196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이 국적상실 통보 ㉠								
	1988년 5월 6일 귀화신고 ㉠								
	1988년 5월 6일 박이남(650501-1567123)과 혼인신고 ㉠								
	1991년 6월 7일 남편 박이남(650501-1567123)과 협의이혼 신고 ㉠								
	1993년 7월 8일 최삼남(620601-1671234)과 혼인신고 ㉠								
	1995년 8월 9일 남편 최삼남(620601-1671234) 사망 ㉠								
	2000년 9월 10일 정삼자(971213-1923456)를 양자로 입양신고(부 정삼남의 입양승낙) ㉠								
2002년 10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망, 동거자 정삼남 신고 ㉠									
구호적	본적				호주				
	서울 용산구 후암동 321				최자남				

[서울]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02)747-2442  
 서울여성의전화강서양천지회 (02)2605-8455  
 서울남서여성민우회 (02)2643-1253  
 서울동북여성민우회 (02)3492-7140  
 서울여성의전화 (02)2272-2161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02)529-6349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한국여성연구소 (02)2273-620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02)2269-2962  
 한국여성학자협의회 (02)2275-7754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02)2273-9535

[인천 경기]

강화여성의전화 (032)934-1903  
 경기여성단체연합 (031)233-8663  
 고양여성민우회 (031)919-1195  
 광명여성의전화 (02)2614-7370  
 군포여성민우회 (031)396-0201  
 김포여성민우회 (031)986-6007  
 새움터 (031)867-4655  
 성남여성의전화 (031)751-2050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80  
 수원여성회 (031)241-7531  
 시흥여성의전화 (032)496-9391  
 안양여성의전화 (031)442-5385  
 안양여성회 (031)465-5050  
 인천여성의전화 (032)527-0090

[대구 경북]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053)421-6758  
 대구여성의전화 (053)657-8086  
 대구여성회 (053)421-6758  
 포항여성회 (054)275-7436  
 함께하는주부모임 (053)425-7701

[부산 울산 경남]

경남여성회 (055)282-6303  
 김해여성의전화 (055)329-6450  
 부산성폭력상담소 (051)513-2475  
 부산여성단체연합 (051)852-6648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부산여성회 (051)852-6648  
 울산여성의전화 (052)246-6712  
 진주여성민우회 (055)743-0410  
 창원여성의전화 (055)266-3722

## 호주제 불안 및 피해사례 전국신고전화

###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063)445-2285  
익산여성의전화 (063)857-8163  
전북여성단체연합 (063)287-3459  
전주여성의전화 (063)287-7324

### [광주 전남]

광주여성의전화 (062)363-7739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062)225-6078  
영광여성의전화 (061)353-4994

### [충청]

대전여민회 (042)257-3534  
천안여성의전화 (041)561-0303  
청주여성의전화 (043)252-0966  
충북여성민우회 (043)252-8124

###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033)643-1985  
원주여성민우회 (033)732-4116  
춘천여성민우회 (033)255-5557

### [제주]

제주여민회 (064)756-7261